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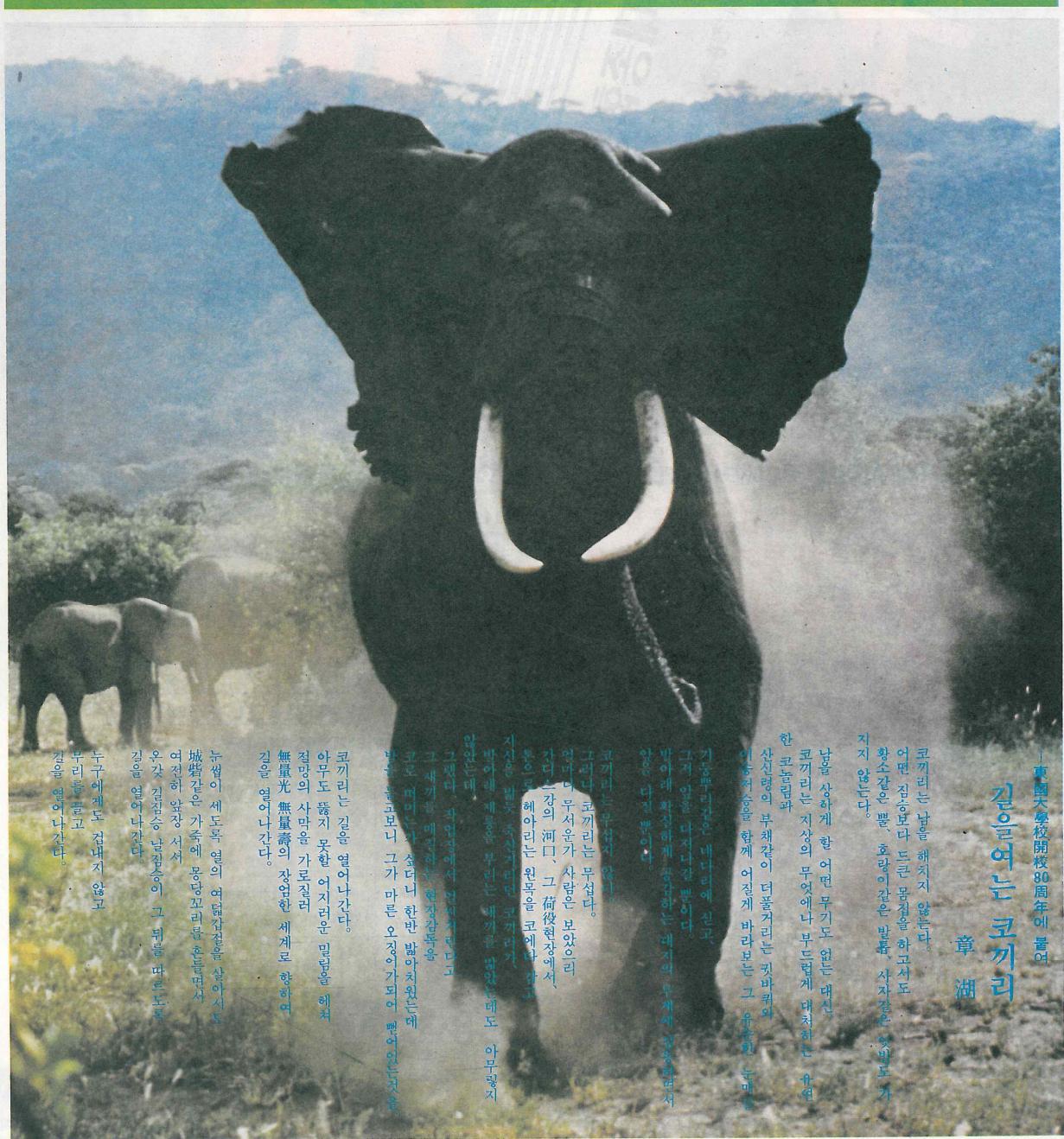
# 東友會報

1986年 4月 30日 第111號 [1]

발행인	鄭申崔	哲炫旭
편집인		在益在
인쇄인		

東國大學校同憲會  
서울특별시 종구 필동 3 가 26  
전화: (직) 267-8568 · 274-7449  
(교) 267-8131 ~ 9(465)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 勇猛精進…이땅에 새 역사를



길을여는 코끼리  
章 湖

코끼리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어떤 짐승보다 드큰 물질을 하고서도

황소같은 뿔, 호랑이 같은 말톱 사자같은 철발도 가지지 않는다.

나를 상하게 할 어떤 무기도 없는 대신 코끼리는 지상의 무엇이나 부드럽게 대처하는 유연

한 코끼리와 부채 같이 더풀거리는 짐바퀴와

이동처음을 함께 어질게 바라보는 그 우수한 눈매를

기둥뿌리같은 네다리에 신고,

그저 암탉을 다쳐나갈 뿐이다.

코끼리는 무섭지 않니

그러나 코끼리는 무섭다.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은 보았으리

자자디 강의 뻐风口, 그 荷役현장에서,

토트고 해아리는 원목을 코에다잡고

자자승 跛足 주신자리인 코끼리가

밖아래 재동에 부리는 대개를 맡았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랬다. 작업장에서 어제거친다고

그 새끼를 애정하는 현장 담독을

코도 머미는가 싶더니 한반 밟아아치웠는데

발을 들고보니 그가 마른 오징어가되어 뼈여얻는것을

길을 열어나간다.

누님이 세도록 열의 여덟갑질을 살아서도

절명의 사막을 가로질려

여전히 앞장 서서 온갖 걸친승 날진수이 그 뒤를 따르도록

걸을 열어나간다.

무리를 흘고 누구에게도 겁내지 않고

걸을 열어나간다.

— 東國大學校開校 80周年에 풀여

금고업계 유일한 상장회사, 최대의 자본규모 — 진흥상호신용금고

10주년  
東友會報 창간 10주년, 개교 80주년



교육세, 방위세, 주민세가 면제되는

## 진흥상호신용금고

「稅 우 대 종 합 통 장 제」 저축은  
금융저축중 최고의 수익을  
드립니다.

소액 가계저축에 대해 대폭적인 세금공제 혜택을  
드리는 진흥상호신용금고 「稅 우 대 종 합 통 장 제」 —  
정기예탁금에 예입하거나 신용부금에 가입하시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연 5%만 적용되므로 세후  
월 1% 이상의 높은 이자가 보장됩니다.

진흥상호신용금고의 「稅 우 대 종 합 통 장 제」 저축은  
금융저축수단 중 최고의 수익을 보증합니다.

금고업계 유일한 상장회사, 최대의 영업규모인  
진흥상호신용금고를 찾아주십시오.

### 가입조건

●기간: 1년이상 ●가입한도: 1인당 500만원 이하

### 정기예탁금

구 분	연이율	세후이자율		세후 연수익률(세투자시)
		연	월	
세금우대	13%	12.35%	1.03%	13.07%
일 반	13%	10.82%	0.9%	11.37%
증가이율		1.53%	0.13%	1.70%

### 목돈마련 신용부금

(계약고 1백만원기준)

기 간	월불입액	연수익률	세후 실수령액	
			세금우대	세금우대 전
15개월	62,600	13 %	1,006,640	998,280
20개월	45,800	13.5%	1,009,000	997,520
25개월	35,700	14 %	1,011,200	996,540
35개월	24,400	14 %	1,014,910	995,030

모두가 믿고 찾는 번영의 터전



본점: 778-6611 (한국은행옆)  
상담전화 영동지점: 545-3653 (강남구청옆)

—**창간 10주년 기념사**—**80년 전통의 東國魏 결집할 때****성과에 만족보다 더 많은 노력 기울여야**

鄭在哲 회장

7만 東國人의 架橋, 東友會報가 어언 창간 10주년을 맞았다고 하니 무었보다도 기쁘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로 모교가 개교 8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東友會報의 창간 10주년은 우리 동창회의 거듭된 경사라 하겠습니다.

시년 1976년 개교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창간호를 낸 이래 1백11호를 기록하며, 10년의 연륜을 쌓아왔으나, 이는 月刊紙로서 거의 결간 없이 꾸준히 발행해온 설입니다. 지난 10년간 각계 동문들의 动靜과 발전하는 모교 소식을 전해주는 반기문 소식통으로서 또 7만 동문의 대화와 우의의 광장을 서로 동우회보의 업적은 실로 지대한 것이라 아니할수 없었습니다.

회보가 없었다면 모교 80주년에 걸맞는 단합되고 화목한 오늘날의 同窓會의 모습은 갖추어 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창간 당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단을 내린 崔載九 명예회장의 先見之明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제자실무를 맡아온 사무국장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충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東大會報의 오늘날의 영광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회보 10주년의 경사를 맞아 그동안의 업적과 성과에만 만족해 하기보다는 이제까지 미치 생각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던 점들을 반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지령 1백호를 기점으로, 12면으로 증면을 하고, 가로쓰기를 단행하는 등 일내 전환점을 맞았던 東友會報에서는 아직도 산적한 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최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모교와 동문들의 소식을 빠짐없이 담기위해 20면으로 증면한 준비를 갖추어야겠지만, 또 회보를 아직도 받아보지 못하는 동문을 대상으로 별도로 발행해내는 작업을 계속해 모든 동문이 받아볼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양적인 확대 못지 않게 질적으로도 내용을 기해, 단순한 정보제공, 계시판적 보도에 그칠것 아니라, 다양한 기획과 함께 내용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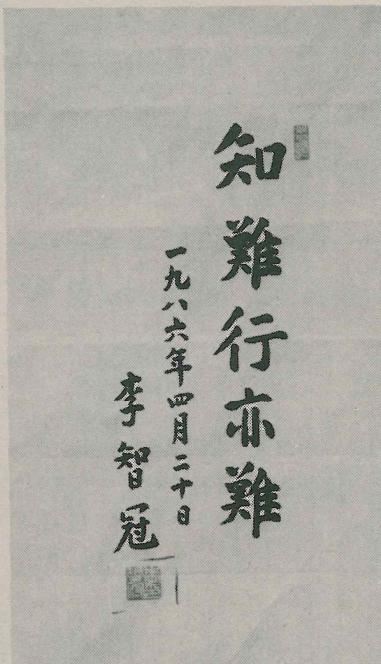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본인을 비

롯한 회장단 및 임원 전원은 가능한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보의 발전과 나아가 모교 및 본회의 발전은 몇몇 동문의 힘만으로는 이룰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개교 80주년을 맞는 모교는 이를 전기로 의과대 설립등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본회 역시 총동창회를 비롯, 지부·지회의 조직확충등 내실을 기하고, 강좌제도 및 각종 사업지원과 함께 모교와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80년의 유구한 전통에 면면히 이어져온 동국혼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동창회는 7만 동국인 모두의 사랑방이며 마음의 고향인 만큼 우리 동문 모두는 동창회에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자기의 분야에서 용맹진하여 東國을 빛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참여의 길이겠습니다만, 회비 납부, 각종 동문소식의 제보등 작은 일에서부터 모교사랑은 비롯되고, 그것이 모여 모교 東國大學校와 동창회의 발전은 기약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모교 80주년과 회보 창간 10주년을 맞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문 여러분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는 바랍니다.

—**기념휘호**—

知  
難  
行  
亦  
難

“깊이 알기도 어  
렵지만 후회없이  
지  
행하기란 더욱 어  
렵다.”



李智冠 총장

**東友會報가 창간 10주년을 맞았습니다**

7만 동국인의 架橋, 東友會報가 창간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東友會報는 同門·신호간의 대화와 우의의 광장을로서, 모교와 동창회의 성장과 발전의 편지로서 지대한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지난해 3월, 지령 1백호를 기해 12면 증면과 함께 가로쓰기를 단행하며, 계시판적인 보도에서 벗어나 읽을거리있는 내용으로 탈바꿈해 왔습니다. 본보에서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은 기획들을 새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1 東國人**

해방이전까지 출현한 동문중 각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쳐 民族史 발전에 공헌하고, 동국의 길지를 일개워준 분들의 자료를 모아 재재함으로써 모교와 동문 및 재학생간의 일체감을 굳게 다지며, 우리 東國史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새로이 하고자 합니다.

모교 교수, 문학계, 언론계등 각계에서 추천인을 선정(영단·후보발표), 자문을 구해, 東國史에 혁혁한 업적을 남긴 東國人들을 소개합니다.

**2 會長席**

오늘날의 同窓會가 있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기여를 해온 각지부·지회의 회장을 소개하는 「會

長席」란을 마련하여, 지부·지회를 이끌어오며 평소 생활하던 접종동창회 범진을 위한 提言 상의의 내용을 실어, 각 지부·지회의 활동상을 알리고, 본회와 지부·지회 및 동문들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노력 못지않게 숨은 노력을 기울여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보에서는 지난 103호부터 계재한 전기 기시朴龍壽씨, 수위 金奉會씨 (110호) 등을 비롯, 수위, 운전기사, 목공기사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들을 찾아소개하고 있습니다.

**3 이색동문 탑방**

동문부부나 동문들중 재학시의 전공과 관계없이 취미등에서 비롯된 일이 평생의 직업이 되어, 그 일속에서 보람을 찾으며, 각분야에서 東國의 용맹진의 기상으로 일한 내용을 가꾸고 있는 동분들을 탑방, 어찌웠던 일, 재미있는 일 등 일화를 위주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4 이사람**

이번호로 마치게 되는 金基奭 (36중불), 동문의 「中央佛教專門學校」를 비롯하여 「우리는 코끼리가족」 「앞서가는 동우회」 「東友提言」 「남산불회상」 등 다양한 기획을 게재, 읽을거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5 80周 학술조사단 기행**

80주년 모교의 발전에는 교수, 학생, 동문들의

**6 기타**

국내최초로 파키스탄의 「캐라코룸하이웨이」를 따라 현지유물 및 유적을 조사함으로 한국사의 영역 확대와 불교미술의 새경지를 열발판을 마련한 모교의 개교 80주년 기념학술조사단(단장=李龍範 교수)의 파키스탄 불교유적답사기행을 지난 110호부터 3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습니다.

**■ 성원에 감사합니다**

창간 10주년을 맞은 동우회보. 그동안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 동국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각오, 더욱 앞진지면으로 10년의 연륜에 의해 동창회의 얼굴로서 광장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85년 4월 일

동국대학교 동창회 사무국

明進學校(1906)中佛教專門學校·惠化車專門學案·東國大學, 그리고 오늘의 동국대학교가 있기까지 민족의 숨결과 형국의 길을 함께 하여온 모교가 80주년을 맞았다. 아울러 廣學會(1908)로創設된 동창회는一心會·校友會·光會·東國大學同窓會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78년의 연륜을 쌓아왔다. 이러한 동국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숱한 어려움속에서 동국인이 솟은 땀과 열이 밀발침되어 왔으며, 그 큰 힘과 큰 지혜로 이제 東國 1세紀를 향해 밝들을하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개교80년과 동창회를 치령 10년을 맞아 사회 각계에서 축하하면서도 각급單位 東友會를 이끌어오고 있는 동문들로부터 소감과 의견을 들어본다.

## 동국인의 긍지가 모교 사랑하는길

그간 <東友會報> 괜찮아! 어려울도 많았지만 <6만 동문에게 二貫의 거룩한 신선을傳해주고 全體 동문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주는> 악중한 사명을 어김없이 다해준 <東友會

으로서 무한한 사랑과 긍지를 느끼며 기쁜 마음을 전한다.  
또한 동창과 재학생, 동창과 모



교, 동창과 사회의 정검다리로 구준히 성장해온 東友會報가 참 간 열음을 맞게 된 꽤도 축복으로 축하드린다.

이 모두가 오랜 연륜의 뒤 인길에서 떠나온 동국인들의 노고가 뒷받침되어진 것이라면 때 전남지부 동문들은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간 대학교보다 뛰어진 모교발전을 위해 지난날의 영광에 연연치 말고 이번 기회를

自身의 전기로 삼아 모교의 무한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광주교육대학 학장>

**母校의發展相을**

**東友會報를 通해서**  
서른셋 돌계단을 숨을 허덕이며 오르내리던 옛 학창



시절을 끌어켜보며 오늘 모교개교 80주년 및 東友會報創刊 10주년 특집호에 원고 정탁 의뢰를 받고 펜을 든든히 헌미디로 감개무량한 따름입니다. 이곳 샌프란시스코 주변 도시를 포함한

이것이 바로 東國을 사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제연구소 상임위원>

## 자랑과 긍지

그리고 自省을  
모교 80주년을 맞아 동국인

崔聖鑄  
(전남지부  
회장)



金定基  
(惠門會  
회장)

<報>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우기母校開校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서 반갑기 그지없다.

오늘의 우리 동문들을 키워준母校 80개星霜의 업인한 길목에서 民族私黨의 大殿堂으로 성장발전한 실로 파란만장의歷程을 겪어 온것을 회고하면 새삼 감개 무량한바 있다.

社会各계 각처에 계시는 동문들에게 바라는 것은 東國은 오늘의 나를形成해 주었기 때문에 생이 끝날때까지 東國은 벗어날수 없습니다. 이 <東友會報>를 통해 떳떳진 새로운 인연을 더욱 두텁게 해서 어디를 가나 東國인의 긍지를 갖고 母校와 同窓會, 東友會報, 萬전에 더욱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東國을 사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제연구소 상임위원>

## 자랑과 긍지

그리고 自省을  
모교 80주년을 맞아 동국인

北加州一帶에 살고 있는 1백 여명의 東國人 동문들은 美國內에 韓國을 심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총음을 아껴 비자법을 허리고 있습니다. 모교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있음을 東友會報를 통하여 매달 접할 때마다 유일한 낙으로 처음에서 끝장까지 한자도 빠진없이 알고 있답니다.

한기지 분명하게 긍지를 갖고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美國에 살고있는 東國人 동문들의 수도 날로 불어나 이제 전美同学門과 다른 점은 동문상호간의 友谊과 선후배간의 상호관계가 분명하며, 월급쟁이가 많은데 비하여 우리同胞은 작으나마 獨自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세한된 면에서 끝으로 母校의 무한한 발전과 東友會報의 신장을 東國人 동문은 美國一隅에서 항상 祝願하고 있습니다. <韓美旅行社 대표>

**80주를 전기로  
동국인이 하나로**

기쁘기 그지없는 경사가 겹쳤다.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축

에 박차를 가해야 할것이다.

또한, 동문사회와의 가교로써 성상해온 풍우회보가 어느덧 장간 10월을 맞아 갑회가 새롭다. 어려울이 많은 여전 속에서 봉사해주고 있는 직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는 학술·문화·농민인의 투고를 두루 받아 보다 더 넓은 내용을 담아주길 바라며, 동문사회를 이어주고 있는 기교로서의 동우회보가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계 동문들의 성원을 모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남부소방서장>

**태어나는 생명의  
신비와 찬박동을**

모교의 개교 80주년과 東友會報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특히 민족시의 암흑과 혼란기인 근세 80년을 늘어놓아 극복해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우수성을 세계

하며 새 東國의 雄飛를 기대한다. <국제특수금속(株)사장>

**100주년을 바라보는 동국 발전위해**

동국 개교 8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행사에 구라파에 거주하는 동창들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자 구라파는 수세기동안 흩어진 가운데 각 나라들이 그 나라별로 축하를 해온다가 최근에 와서 통일된 구라파를 목표로 광복할만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李濟一  
(同上  
副總會  
會長)

경제·문화·사회·과학등 모든 분야가 통일된 구라파에서도 효율적인 발전을 할수 있다고 구라파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태평양 지역의 발전이 금세기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체제시대가 와야 된다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향후 1백주년을 바라보는 東國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태평양 지역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통일체제를 이루는데 관심을 두고, 더 나아가서 기수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웃나라와의 긴밀한 협력없이 한국만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태평양 지역 여러나라들이 구라파 지역 통일체제를 눈여겨 보고 이에 준비와 각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朴鍾允  
(忠南  
支部  
會長)

에 표출한 대전환의 북쪽 유통국이 그 뒷받침을 해온 東國입니다. 그 뒷받침을 해온 東國입니다. 그 뒷받침을 해온 東國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한 현실은 社會全般에 걸친 변화를 일으키는 自由와民主의 氣流에 따라 民族의 앞날에 새로운 轉換을豫告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勇氣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사의 앞날을 이끌어갈 東國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東友會報는 이를 위한 東國人의 意志의 結集을 위해 다시 刻苦해야 할 것입니다.

우깊은 기념일을 맞이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東友會報는 축복과 희망의使者로 활동을 다시 생각

# 慶 東友會報 창간 10주년

韓國住宅銀 基行	(株) 金安在 淳剛	韓國自動車保險 (株)	韓國商業銀 秀行	第一 專務理事 許文烈	國 副 理 事 長 一 金 天 壽 行	복 地 副 理 事 長 一 金 天 壽 行	大 韓 投 資 金 融 (株)	매 顧 問 日 金 鍾 萬 大 韓 投 資 金 融 (株)	東 洋 金 屬 工 業 (株)	江 南 高 速 터 미 날 (株)
副 行 長 補 金 基	副 社 長 金 在 基	副 社 長 李 安 燦	副 社 長 李 錫 龍	常 務 理 事 李 秀 龍	副 理 事 長 宋 寶 烈 行	副 理 事 長 安 中 · 高 校	代 表 理 事 李 鍾 萬	會 長 洪 鳳 來	會 長 洪 鳳 來	代表 理 事 金 南 龍 巴

# 80周 東國의 빛

## 80周年의 기쁨을 7만의 힘으로

모교의 교사가 타대학에 비해 뛰어져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에 개교80년의 경사를 맞은 것은 우리 동국인에게 여러 모교 의의가 깊은 일이라 볼



(한국생명  
동우회  
부회장)

니다. 그래서 80주년은 축제로 서만 그쳐서는 안되며 7만동국인의 고조된 발전의지를 규합하여 힘으로 모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배와 후배가 하나 되고, 동창회·학교·재단이 한 뜻이 되어야 하는 대승적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자화자찬이나 자승자의 우물에서 벚나와 더 큰 안목으로 보교 개교 1세기를 향해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생명(株) 총무이사>

後生이

可畏라는데

모교 80년의 역사와 전통은 이무리 자랑해도 좋을 것 같다.



(한국생명  
동우회  
부회장)

다면 선배자랑이나 하고 옛말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자신의 악착같은 노력이나 추진력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 그걸 참작하기 바란다.

後生이 可畏라는 말처럼 우

리학교에서도 선배들보다 나온 후배가 얼마든지 나와야 할 것이다. 다른 분야는 논외로 하 고 문학에서도 잘 만해, 무대, 미당 자랑만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어른들 보다 더 나은 후진이 나오지 말라는 법 없으니 큰 원을 하나씩 세우고 정진해 볼 일이다.

솔직히 300년에 걸친 한국인 수만 많다고 짧게 아니라 (필자를 포함해서) 이를 아울러 출판 원고지와 세워야 솔직한人文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계제에 학교당국이나 동창회에서는 이 엄청난 韓國文人들이 『東國』이란 이름을 넣고 책도 만들수 있고, 산도탈수 있고, 나름대로 지방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다면 하는 바람이다.

<東國詩集> <東國文學賞> 등의 밤간, <東國文學賞>의 제정, <東國文人通鑑>의 건립등이 그런 일인데 지난한 文人들이 아무리 짓밟을 흔들어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해서 언제 빛을 보겠는가? 그래도 신분·접시·저서등에 늘 東國人學校나왔다고 밝히고 있는 文人들을 만큼 학생색각하는 동문도 훌치 않으니 이를 신명이 나도록 부추겨 주시기 바라며 열살은 東友會報의 전승을 기원한다. <小說家>

## 一世紀를 향하는

### 巨木이 되어

이제 一世紀를 志向하는 巨



(한국생명  
동우회  
부회장)

木으로 나날이 發展하는 母校의 모습을 지켜보다는 것은 여

를 동문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우리 모교의 校名인 「東國」을 東方聖國의 의 출입 달로 풀이하여 왔었다. 동쪽에 있는 섬인의 나라란 뜻이다. 그러므로 주제성자(主世聖者)를 많이 배출할수 있는 나라의 큰 배움터가 곧 우리 모교인 東國의 校名 解意라고

교인 동국대가 결승전 한판을 벌여들어지게 연출해 낸것도 어찌 범심한 우연으로 보겠는가. 모두가 소중한 佛緣의 소지로 보고 싶다. 80를 모교의 생일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원평대부총장)

## 한·양방 통합한 종합병원 건립을

역사를 되짚어볼 때마다 새로운 인식을 품게 되는 까닭은 궁극의 의의가 발전지향에 있기 때문이라고 느낍니다. 구한말로부터 오늘날까지 東國80년은 단순한 연월이 수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나은 모교의 발전이 기약되고 이 사회에 더욱 밝은 지혜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에 무한히 기쁘며, 뜻깊은 장거리 생각합니다.

제가 한의학과 출신으로서 모교에 바라보는 것은 현재의 병원시설을 확충해 밀라비 병원입니다. 모교의 건강증진을 바탕으로 한·양방을 통합한 병원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東國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대학의 대사회적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재단·동부이 마련하고 학생들은 면학에 충실히 모교발전의 큰楫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李圭玄 문

<한의학과 대구지부장·장성한 의원 원장>

## 會費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년에 1만원...회보제작·장학기금·사무국운영에요긴

(단위: 만원)	▲ 김월환(58법학)=	▲ 김성규(60경제)=	▲ 박문고(78무역)=
◇ 회장단 분담금	▲ 이정규(60정치)=	▲ 김명길(74공경)=	▲ 김관체(70경제)=
▲ 박준형부회장=50	▲ 정현필(79사학)=	▲ 강종구(84토목)=	▲ 이상국(83원원)=
▲ 조규부회장=100	▲ 이교(49문학)=	▲ 서남춘(52국문)=	▲ 이신영(70경제)=
◇ 상무이사 회비	▲ 조우성(64경제)=	▲ 김승호(60경제)=	▲ 이영태( )=
▲ 이석룡(58정치)=20	▲ 정용남(63영문)=	▲ 김두문(68농학)=	▲ 김명식(60법학)=
▲ 김준용(53경제)=	▲ 안중요(65영문)=	▲ 인창우(56경제)=	◇ 단체 회비
◇ 이사회비	▲ 정병락(67경영)=	▲ 이내전(63경제)=	▲ 한국투자신자동우회(회장: 정용답)=
▲ 강희찬(61정치)=5	▲ 이영자(63불교)=	▲ 서거원(64경제)=2	▲ 하현숙(71수학)=1
▲ 박해준(61경제)=6	▲ 이봉서(81경원)=2	▲ 송영배(71상학)=	▲ 최상준(74공경)=20
▲ 박종국(65행정)=5	▲ 박환장(57농학)=1	▲ 오득규(75원원)=	▲ 김진희(회장: 이인식)=10
▲ 이경순(64법학)=	▲ 이경복(61법학)=	▲ 오주환(61정치)=	▲ 캐나다동문회(회장: 이구영)=500\$
▲ 정지호(58수학)=	▲ 김상준(74공경)=	▲ 김찬식(80원원)=	▲ 동진희(회장: 이인식)=10
▲ 정기원(61정치)=5	▲ 김관희(60법학)=	▲ 김동진(80원원)=	▲ 캐나다동문회(회장: 이구영)=500\$
▲ 이내전(63경제)=	▲ 김관희(60법학)=	▲ 김진희(회장: 이인식)=10	장: 이구영)=500\$

# 모교開校 80주년 祝

支店長  
朝興銀行  
張都  
松

支店長  
韓一銀行  
張誠  
一

支店長  
朝興銀行  
陳宗  
龜

支店長  
韓國外換銀行  
金容  
聖

支店長  
朝興銀行  
李正  
煥

支店長  
서울信託銀行  
安國  
承

支店長  
韓國商業銀行  
盧萬  
植

支店長  
第一銀行  
鄭赫  
赫

支店長  
國民銀行  
薛顯  
顯

支店長  
서울信託銀行  
金春  
旭

支店長  
咸泳旭  
在柏

支店長  
國民銀行  
鄭在柏

동문들의 사랑방역할을 해온「東友會報」가 오는 5월 8일로 창간 10주년을 맞는다. 농분사회의 연결구조와 함께 東國정신의 전승자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앞장서왔던 「東友會報」은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그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이 글에 서는 회보 이전의 홍보매체와, 창간, 각종 사업등의 자취를 더듬어보고 앞으로의 계획등을 짐작해 보기로 한다.

## 1. 회보이전의 홍보

창간 4년전인 1972년 6월 5일 보고 「東大新聞」 3면한판에 「同懇會 소식」이라는 작은지면이 마련됨으로서 회보의前身이 탄생했다. 그 이전에도 발행된 간행물이 있었으나, 부정기적이었다. 당시 「東大新聞」 주간=宋赫 59국문·작성, 편집부장=申寬浩·73경제·現동대신문 사 편집국장)의 「同懇會 소식」 기사는 春川지부 창립총회와 同門동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 후에도 동대신문에서 나올 때마다 매주 한판씩 소식이 전해졌다. 동녀회, 신민동우회, 언론동문회, 농학과등의 창립총회와 이산, 천안, 춘천, 선남등의 지부활동, L A지부, 美東부지부 등 해외에서나 회보발간과 연계되는 일정들이 그 당시의 기사였다.

동창회 회보의 발간을 결의한 첫회에는 72년 9월 20일 회장단회의에서였고 9월 25일에는

사무국 실무진들이 이사업을 다시 논의했으나 회보발간과 연계되는 못했다.

76년 5월 11일자 동대신문에서

「東國人名錄」 발행과 함께 「東友會報」 창간기사가 나왔다. 이

동창회란은 회보창간후에도 계

속되었다가 77년 1월 4일 송년회와

임시총회를 끝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 2. 「東友會報」 창간

1976년 5월 8일 개교70주년을

기해 발간된 「東友會報」은 모

교에서 열린 첫기획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창간호에는 다보로이드판 8면으로

崔載九 前회장의 창간사, 同懇

會副會長 동창회의 발자취, 특별

좌담회, 東國의 傳統, 74~75년

도 결산과 76년도 사업계획

등이 실렸다.

尹天泳 (66 농학·세원전업대

표) 사무국장과 宋寬浩동문이 취

재 및 면접을 했는데, 金基好 (48

# 東友會報 10년의 발자취

혜전·모교교수), 閔圭鏞 (50불교· 당시 時事통신사장부이사) 등분들의 「있을수는 東大時節」이라는 수필과 李錦鉉 (50국문) 金殷夏 (51정치) 등분의 「나의 묘교... 동대시절」 이란 회고, 李丙璣 (50국문· 모교대학원장) 등분의 「提言」도 실렸다. 또한 모교70주년 「장학기금조성 추진 위원회」의 구성을 알리고 同門들의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

결국 창간호가 제기가 되어 그후부터 계속 회보가 발행되었다.

3. 조창기의 東友會報  
그러나 여려가지 여건상 매월 발행되지 못하고 거의 두 달에 한번씩 나오게 되었는데 동문들의 학교와 동창회발전을 위한 발언데 「東友提言」이 고정적으로 실렸고 잠한 동문을 소개하는 「同門탐방」 주요 헌장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 「東國의 傳統」 앞서가는 지회·지부순방, 동문부부식, 東大와 나

있다. 이중 70주 장학기금조성은 시종 동창회가 주도해온 것으로 회보는 매회 모금액, 잠여동문·단체를 소개하고 동문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재정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연회비제의 정착을 위해 7·8 호로부터는 광고로 및 연회비부지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제시 <창간호~>

▲ 東國의 傳統=그동안 쌓아온 전통을 학문적 측면에서 정리, 동국의 학문사면을 이워온 佛教學, 文學, 國文學, 史學, 英文學 등을 논자를 중심으로 소개<창간호~63·4호>

▲ 앞서가는 東友會=文會, 또는 支部·기관에 모범적인 모임을 소개, 구연친은 東友會스크



## 7만동문의 代辦紙...동창회의 산 증인 76년 5월 모교 70주년 기해 創刊 學統계승·회비정착·장학기금 조성 등도

의 총집시절, 기획회담, 당시 연재기획으로 개재되었다.

76년 12월 17일에는 첫번째 「호외」가 발간되었는데 「송년회결 동문축하」를 위한 것으로 장학기금 협진나역과 험사원나, 새해를 맞는 결의등으로 되어 있다.

그후 발전을 거듭해가면서 77년 3월 지회11호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안정기로써 서서 매월 8면을 고정, 발행했는데 1면에 회보를 크게 싣는 모양의 편집이 자리 잡아 오늘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초창기 「동우회보」의 주시업으로는 동문간의 화합조성, 동문찾기, 장학기금조성을 등수

또한 15·6 호까지는 「同門詩」 사람들의 시를 소개 교양의 폭넓었고, 기회를 때마다 東國精神을 강조해 주었다.

초창기의 동우회는 동창회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각면마다 특색 있는 성격을 설정, 동문사회에 중요한 매체로서 자리를 잡아가는게 주력했다.

4. 東友會報의 연재물

그간의 연재물들은 동우회보의 특색과 성격을 세우고 발전적인 내용을 지닌것들로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 東友提言=모교와 동창회의 활동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동문들

인, 지부단번<창간호~>

▲ 코끼리가족=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동문부부를 소개<3호~>

▲ 同門探訪=투월한 개인월학을 지닌 노모동문을 담방<2호~56호>

▲ 座談 「學密을 그린다」=각 출입생들을 연도별로 초청, 흩어진同期들이 모여 학창시절을 회고하고 균황을 듣는다.<3호~12호>

▲ 學窓急談=중견동문들이 학창시절을 회고하며, 후배들에게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경수필.<18호~38호>

▲ 東友斷想=東國정신의 개인적 체험담.<19호~48호>

▲ 내꿈을 키우다=각부야에서

정상을 한한 꿈을 키우고 있는 동문들을 폭넓게 취재<40호~63·4호>

▲ 날산골 回憶=동문작가들의 꿈트<55호~>

▲ 東友漫評=鄭雲耕 (60국문· 중앙일보 편집위원) 회백이 그려는 동창회의 개인기처.

▲ 同動記=미망을 소개하고 본회와 모교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글.<101호~>

▲ 나의 惠寧사찰 中央佛教專學校=金定基 (49예전) 金基準 (36중불) 두동문으로부터 당시 의생생한역사를 듣는다.<101호~104호·109호~111호>

▲ 이사람=동국80년의 영광에 소리없이 편신해온 근로요원들을 탐방<109호~>

## 5. 최근의 동우회보

최근 東友會報는 1호부터 90호까지는 모아 합병호를 만들기도 했다.

그간 편집진이 바뀌면서 소폭의 변화가 있었으나 100호가 되면서 회보는 본격적으로 보는 신문으로의 변화를 꾀했다. 겉면을 화보로 꾸미고 기사에서도 사진을 크게싣고 교양풀을 들었다. 또한 동국정신을 고장한 기회를 마련 앞서가는 회보로서의 기능을 한껏 살리고, 동문들이에 없어서는 안될 회보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한편, 그간 연락이 끊어졌던 지부를 재파악하고 새동문문을 찾고, 동창회관 건립, 80주년기념 장학기금조성등을 주도하고 있다.

## 6. 동창회와 동우회보

『東友會報』는 지난 10년간 同懇會史의 산 증인으로 자리 오면서, 동문들에게 빠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올해부터 동우회는 동우회보가 발굴된 동문들과 신입회원까지 합친 7만여명이라는 대식구를 거느린 매머드급 동창회로 발전했는데, 그에 따른 증명, 증부의 필요성과 동문들의 적극참여가 절실히해지고 있다. 그리고 동우회보에서는 동문들을 스스로 기사와 편집에 참여해서 전 동국인의 신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갈 것이다.

동창회와 동문들의 대변자로 서 쌓았던 10개월霜을 앞으로 의 도약에 대한 속초으로 삼아, 다른 진통 바른 역사침 달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lt;寅&gt;

# 祝 東友會報 창간10周·모교 개교80周年

三 代 表 電 氣 興 業 南 社	一 制 金 化 榮 學 (株) 三 代 表 金 松 榮 (株)	一 협 우 表 金 松 源 社	한 대 表 権 寧 開 煉 發	김 대 朴 煉 俊 剛	스 대 朴 煉 俊 剛	(株) 대 李 貿 昌 刚	鮮 대 俞 正 易	東 刚 金 一 金	일 동 제 관 工 業 (株) 대 金 金 是 一	금 대 강 通 事 成 一 金	영 대 진 通 事 成 一 金	대 金 木 文 植 材	眞 善 美 建 設 (株) 대 李 万 九 金	대 代 崔 光 住 春 宅
---	--	--------------------------------------	--------------------------------------	----------------------------	----------------------------	------------------------------	-----------------------	-----------------------	--	--------------------------------------	--------------------------------------	----------------------------	---	---------------------------------

# 東友會報 창간10주년 맞아

76년 5월 8일 창간 대화와 友誼의 광장

- ◇... 7만 동국인의 架橋, 東友會報가 창간10주년을 맞았다. 同門들의 대화 ...◇
- ◇... 와 우의의 광장으로서, 모교와 본회의 성장과 발전의 편지로서 앞장 ...◇
- ◇... 서은 東友會報는 그간 조직강화, 동문발굴, 장학사업의 전개등 7만 동 ...◇
- ◇... 문사회의 정보매체로서 지대한 업적을 이루어 왔다. 창간 10주년을 맞아 ...◇
- ◇... 본보에서는 20面특집 기념호를 발간하고, 아울러 모교의 개교 80주년을 ...◇
- ◇... 기념하기 위해 「東國人」(會長席) 등 기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

## 모교와 본회 발전의 선봉으로

1976년 5월 8일 모교의 개교 70주년을 기해 창간호를 냈으며 이래 지금 1백 1호를 기록해 온 동국인의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격월간으로 발행되며 동문간의 화합조성, 동문찾기, 장학기금조성 등을 주 사업으로 펼쳐왔다.

회보가 창간되기 이전에도前身인 작은 지면이 동대신문(1972년 6월 5일부터) 3면 단면에 마련되어 회보 창간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

그후 72년 9월 20일 회장단회의에서 회보발간을 결의하고, 준비작업을 거쳐 당시 延大冰(66동학·세워건대표) 사무국장과 申浩(73경제·동대신문 편집국장) 동문이 취재와 편집을 담당해 창간호가 탄생하게 되었다.

격월간으로 발행되어 오던

東友會報는 77년 3월 지령 11호부터 월간으로 바뀌어 보다 빠른 동창회 소식을 전하게 되어온다. 지난 3월 지령 1번 호를 맞으며,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과 함께 가로쓰기를 단행하고 교양사를 늘려 보는 신문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 해외지부 定期總會 잇달아

### 北加州·캐나다지부 임원개선

(회장=金厚  
北加州동문회  
吉=41회전)는  
지난 3월 15일  
서니베일 무교장식당에서 86년  
도 정기총회를 열고 5대회장  
에 초대회장을 지난 金容日(62  
법학·한미여행사 대표) 동문을

선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선출했다.  
▲前副會長=김기훈·박노면·김용  
직·이보윤  
▲부회장=한양수·하해원  
▲감사=안상부  
▲기획=최문규  
▲문화=박준우  
▲총무=정주환  
▲재무=유학선

#### <金容日別보>

(회장=李熹)

[캐나다동문회] 永=63상학) 이  
서는 정기총회를 열고 소식과 함께 회원들의 근황을 알렸다.

同會는 지난 3월 29일 부부동반으로 50여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86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同會는 지난 3월 29일 부부동반으로 50여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86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 "80개星霜, 民族의 大學으로,"

모교가 오는 5월 8일로 개교 80주년을 맞는다. 舊韓末 國祚의 비운이 겹치고 있을 때, 佛教의 선각자들이 教育求國의 기치를 내걸고 1906년 5월 8일 元興寺에 明進學校를 개교한 이래 80개星霜을 쌓아오며 명실상부한 民族의 대학으로 그위치를 확고히 해왔다.

86년도 회장단 및 임원선출을 했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李熹(63상학)  
▲부회장=金圭哲(70정외)  
▲총무=林尤植(82사교)

한편 同會에서는 李熹(66경 영) 동문이 지난해 몬타리오 한인 실업인협회 회장에 피선된 데 이어, 曹延大(64국문) 동문이 이사장에 피선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5백달러의 연회비를 보내 오기도 했다. <林尤植別보>

을 중심으로 국제 결속돼 있으며 최근 本會에 회원명단과 함께 國會의 활동소식을 전해왔다.

현재 同會는 매월 4일 월례회를 갖고 있고 연락처는 상주시 무암동 62~24 전화(2) 5344(조흥기 총무)이다.

## 釋林會 정기총회 임원개선등 결의

釋林會(회장=월탄)에서는 지난 12일 백상원에서 동문과 재학생들이 친절한 가운데 제 5차 정기총회를 열고 중요안건을 힘의회했다.

임원개선은 전 회장단을 유임시키고 사무총장 및 각부장을 새로이 뽑았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석립인의 나야간 방향·종단내에서의 역할, 장학기금 직급, 미꾸니기숙사 건립, 사무실 설치등의 안건에 대해 폭넓은 힘의회를 나눴다.

同會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윤호진·명우·임봉준▲사무총무=월한일·총무부  
장=등무·자재부=혜진·조직부=전상지·문화부=이종립·▲섭외부=박진관。

지난 110호에 게재된 本會 이사명단 중 잘

못을 비로 삼습니다.

▲누락=南時燮(58政經)·서을  
신학은행 회현동 지점장·徐榮鎮  
(61經濟·대한기축원 대표)·李相  
振(62政外·청와대비서실장실)  
魯柱赫(82農生·한국산업은행 심  
사부)·金共千(83營行·한일은행  
대전지점)·尹丙鉉(84經營·외환  
은행 외환부)

▲정경=南時燮·南時奕(58政  
經), 閔鉉哲·閔鉉哲(65國文),  
鄭煥昊·鄭煥昊(69農學), 李殷甲  
(74經濟)·한일은행 본점연수부→  
한일은행 부평지점 차장, 趙春煥  
→趙春煥(74經濟)

## 東友漫評

鄭雲耕



"겁 잡치"

## "濟州지부 활동소식 알려와,"

### 부인천목「東綠會」조직 장학사업도

濟州지부(회장=강대원·판  
남대 객원교수)는 회원및 임  
원명단과 함께 최근 동회의  
활동소식을 알려왔다.

76년에 창립, 현재 24명의  
회원이 활동중인 同會는 분  
기별로 회원집을 방문하며 정  
기모임을 열고 있고 특히 동  
문부인들이 「東綠會」는 신  
목회를 조직하여 월 1회 별  
도모임을 가지며 장학기금을  
적립하는 등의 이치로운 모  
임을 열고 있다.

또한 同會는 지난 3월 29  
일 방문한 본회 宣普圭主임  
부회장을 통해 제주전역에 사

제한 동문구합에 힘써 조직  
및 유대강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는등 각종 사업활동을 펼  
쳐나갈 뜻을 전해왔다.

同會의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玄平孝(51國文·前  
제주대총장) 고춘호(51법학)  
▲외장=康人元(52정지·曰  
本관남대학 객원교수)

▲부회장=慎鍾禹(59경제·동  
서기업대표)  
▲이사=李相珍(58法학) 金  
榮柱(58정지) 任泰浩(64농학)  
▲총무=左京熙(69 심공)

## 經院正총, 모교발전앞장 다짐

### 校旗전달, 신임이사 추내도

고 폐회했다.

## 城北동문회 월례회

### 야구부에 음료수도

서울 城北동문회(회장=金光  
錦·종년기 대표)는 지난 22  
일 오후 6시 풍년각에서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閔丙哲(66  
상학·삼일문화사 대표)·崔福  
澤(85행복·종암서 경비과장  
부)·李二玉(86국문) 동문들을  
신임회원으로 맛았고, 회원 경  
조사등을 공지하고 사업보고를  
했다.

서울지역에서 지역동우회로는  
일원한支회인 同會는 월례회를 통  
해 굽은 단합을 보여왔고, 지난  
1일 전국대학이구총재리그  
전 결승전에는 선수단에게 음  
료수 3상자를 회사하여 선전  
을 격려하기도 했다.

尚州市 동국회

## 매월 4일 월례회

경북 尚州市동국회(회장= 강  
태식·57 경제·고려예식장 대  
표)가 오래전부터 친목모임을  
정기적으로 열며 15명의 회원

## 東大新聞에 셋방살이

▲사회=바쁘신 중에도 창간 10주년기념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회보가 7만동문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 더 나은 회보, 앞서가는 동창회를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간 동우회보를 위해 열심히 뛰어온 창간의 주역들, 편집등 실무를 맡아온 분들이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이제껏 이루어온 회보의 공과를 기를하고, 올바른 회보의 발전방향, 동창회의 활성화, 80주년을 맞는 도교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寛浩=창간호를 만들면서 가拈(1986) 같은데 벌써 10주년을 맞았더니 갑자기 무랑합니다. 당시 서둘러 몇개대학 동창회에서 동창회보가 나오고 있는지, 그것이 큰 자리에 떴습니다. 우리는 「東大新聞」에 약간의 지면을 빌어 동창회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내에서도 필요에 의한 자상의 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우선 창간호도 떠나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서둘렀는데 인쇄시설도 협력했어서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신문이 아마 개교70주년 축하였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문들이 많이 이를 관심을 가져주어서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동문들의 성원속에서

▲尹天泳=그 당시는 제가 여식원 하나만을 두고 동창회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때였는데 활동을 하다보니까 자연 회보의 필요성을 떠올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장단에 회보발행 행위를 강력하게 권의했죠. 그때 비용문제 등으로는 반대의견은 장학기금조성이 최우선의 일정으로 통보는 후로 미뤄야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홍보매체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신 崔漢九(前회장) 님의 결단으로 회보가 빛을 봤죠. 교수80주년을 생각할 때 회보 창간10주년은 그리 이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힘을 쓸수록은 것은 동문들의 두터운 성원때문이죠. 회보를 만드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지와 해외에까지 퍼져버려 있는 동문들의 신변현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쉬운 일이 아니죠.

▲申寛浩=창간호부터 8년을 기준으로 제작되었는데, 그걸 지기려고 많은 애를 했습니다. 불가피한 때는 학습호를 냉고나 까 그런 때와 함께로 제작만 4년을 냈지요.

그런데도 수워로부터 지면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피가 많아야 내용도 많고, 읽을 거리도 많아진다는 거죠.

## 보는 회보 시대 열려

▲韓萬洙=지난 100호 때부터는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새롭게 변화를 했습니다. 세로짜기에서 가로짜기로 바뀐것이 제일 큰 변화였고 활자도 기우고 사진을 데워 써서 시원하게 보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겉면을 향상화 보보로 하면서 12면

- ① 회보 「東友會報」이 오는 5월 8일로 치 10주년을 맞는다. 지난
- ② 76년 개교 70주년과 함께 탄생한 본보는 7만동문들의 성원속에 몽문간
- ③ 의 架構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동국장학기금과 억원조성, 80주년 장
- ④ 학금등의 사업을 주도하는 한편 단위조직확대, 사동문 발굴, 동문의 소식
- ⑤ 통으로 광복70주년 성과를 거두었다. 본보는 「당시가는 東友會報」로서의 위
- ⑥ 상을 설정하고, 본회와 동국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소리가 높아가는 것에
- ⑦ 부응하기 위해 활동 새로운 회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보에서는 구
- ⑧ 체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내일의 동우회보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 ⑨ 창간의 주역들과 편집에 관여했던 실무진들의 자리마련, 보다 실질적인
- ⑩ 세연을 들어본다.

&lt;편집자&gt;

## 창간10주년 기획좌담

## “성숙한 東國精神의 계승자”

을 발행하고 다채로운 기획과 연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의 대부분을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는데 역점 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생, 골치거리는 동문동정등이 기사화되었는데 이 문제는 동문들의 전화 한 통화 편지 항통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사회=회보가 회발전에 기여한 점은 상당히 많지만 어떤 점은 지지지 못한 것들도 있을 텐데요?

▲申寛浩=그래도 회보를 보니 주니가 여기저기서 내기도 좀 보내달라고 연락들이 오더군요. 관심이 없던 분들까지도 관심을 보여주고 회비도 내고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년회비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인 회보를 계속 보내주니가 하다못해 우표값, 구독료로도 내야한다는 생각에선지 또 회비들을 많이 내시더군요. 처음에는 회비를 낸 분들의 명단을 회보에 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년회비가 정착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겸한 회비는 별광고도 없이 시작한 회보제작동에 요구하게 쓰였죠.

▲李相泰=동문들이 참여를 돋이는데도 회보가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한 동우회가 모임을 가진 것이 회보에 나면, 그 지방의 다른 동문들, 또 신문을 받아보는 모든 동문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하는 확인을 되고, 소식이 많았던 사람도 다시 만나고, 다른 모임으로 유도하는 지역지가 되기도 하는 거죠.

## 나까?

▲南基一=그것도 좋은 생 각입니다. 우선은 신문을 제날짜에 받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회보를 받아보는 날이 일치하도록 배려를 해야겠습니다. 제작일을 당기면 가능합니다. 제작일과 편집일도 마련되고 하면, 지금 계적으로 면을 늘려서 지부 소식, 동문근황, 기획을 좀 더 풍부하게 해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일중의 하나입니다.

▲申寛浩=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는 없이 아르바이트기자

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나 취재에 필요한 카메라 한대, 녹음기 한대가 없습니다.

▲南基一=그러나 발행 일만 지적하는 전기자는

생기고, 취재기자를 마련하고,

새로운 동창회관으로 옮겨가서 편집실도 마련되고 하면, 지금

여유있게 신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康鎭元=제작 여건이 개선

## &lt;참석자&gt;



□일시 : 1986년 4월 22일 (火)

□장소 : 본회사무국 회의실

□사회 : 申興來 본회총무

## 增面·전임기자 임용, 숨쉬는 기사 제공해야

## 會報……동창회 발전의 一等功臣

## 동창회관 건립, 동문상봉의 날 제정 절실

## 회비정책에 기여

▲尹天泳=그 밖에도 각동장학사업이나 지역 단위 강연회를 주최할 때도 사전홍보와 동문들의 참여를 촉구해서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있었어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본회에서 유치하는 행사가 있으면 매우 환영하는 행사를 거하고 지역적인 홍보까지 해 주며 군요.

앞으로는 회보에서 이런 편ペ인도 했으면 합니다. 동창회관 건립기금조성에 전동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통해 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광고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험조도 더 잡해주는 추세입니다.

## 여야 합니다.

▲사회=증면, 증부는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비용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가능한 일인죠.

## 광고협조도 큰 힘

▲申寛浩=비용을 자체 해결하는 방법중에 광고가 있는데, 성격상 주로 동문들의 협찬광고만 있고 있어서 협조가 없이는 어려울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광고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험조도 더 잡해주는 추세입니다.

▲韓萬洙=제작여건 개선되

광고주의 기사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업이나 활동상을 제시함으로서 독자적인 사명감 속에서 존재해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南基一=이미 회보가 동문 사회에서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지만, 필자나 기사화 되는 동문들의 폭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직 동문 누구나 필자 될 수 있고 편집인이 되어서 회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이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전 모든 동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 동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은 회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우리 회보가 현재 계속적으로 교양이나 문예, 동국정신세계에 대한 출판이나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양과 질을 늘려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창회와 교묘한 발전을 위한 전시들을 한마디…

▲康鎭元=지금 우리 동창회의 가장 궁금했던 목적은 역시 동창회관 건립입니다. 이미 회관을 건립한 모대학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기분이 안정되거나 다른 활동까지도 활발해지거든요.

회관건립은 一石二鳥  
▲申寛浩=동창회가 지금도 회비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을 재투자하는 건데 회관을 지으면 건물은 그대로 있으면서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분양을 하니까 그것을 다시 적립할 수 있게 되고 그야말로 一石二鳥죠.

이 일은 7만동문을 모두가 환영할 거라고 누구라도 그런 생각 안하겠습니까? 우리도 빛난한 회관이나 있으면 보면 하는 것은 동문 모두의 공통된 바램입니다.

▲康鎭元=올부터 경주캠퍼스에서 내대신입생은 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들 80년을 중흥의 전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면 회관이나 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南基一=우회는 沙佛教·同門·同門회·학생·학교가 모두 참여해서 확실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더 바란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인데, 스포츠에 그 기능을 전가하다니 해서는 안되겠죠. 그일을 동창회가 하면 어떨까요?

▲李相泰=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동문, 또 서울에 있는 동문들도 자주 만나기 힘듭니다. 「상봉의 날」 다시 말하면 일년에 한 번 모이는 날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문들이 웃지 않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면접연수장이나 회관이나 판자나 블록이나 그릴을 수 있습니다.

▲韓萬洙=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혹은 정기총회날은 일정한 날로 지정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날만 되면 당연히 충장을 하거나 미리 준비해서 참여할수가 있겠죠.

▲尹天泳=동문들의 전의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문들의 의견과 기사에서 받았을 때마다 그걸 제시하고 그걸로 활동을 하는겁니다. 그렇지만 동문과의 연계가 더 심화될 수 있죠.

▲사회=오랜 시간동안 좋은 말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동창회를 위해서 조언으로 알고 꾸준히 정진해나간 것을 약속드립니다.



東友會報 창간 10주년 · 개교 80주년



아스파탐으로 만든 저칼로리 감미료  
그린스위트

Sweet

다이어트하면서 달콤함을 마음껏...  
비만, 당뇨, 충치 걱정 없어요.

Cal  
비만·당뇨



그린스위트는 칼로리 걱정 없이 단맛을 즐기고  
싶은 분, 설탕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을 위해 태어난  
저칼로리 건강감미료입니다.

### 그린스위트의 특징

- 천연의 부드러운 단맛으로 뒷맛이 신뜻합니다.
- 필수아미노산과 감미료로 천연식품과 같이 체내에  
서 소화 흡수됩니다.
- 아스파탐은 미국 FDA에서 안전성을 공인했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음  
니다.

### 그린스위트

- 커피, 홍차, 밀크에
- 과일, 화채, 디저트 등 각종 요리에

#### • 희망소비자기격

- 일반용(파림) : 1g × 20포 : 1,000 원, 1g × 50포 : 2,400 원
- 가정용(파림) : 100g/봉 : 2,000 원
- 휴대용(정제) : 100정/케이스 : 2,000 원

### 건강 다이어트용 저칼로리 고급감미료

**Green Sweet**



주식 회사 녹십자

식 품 사 업 부

\*판매처 : 전국 약국, 백화점, 수퍼마켓 \*문의처 : 녹십자 식품사업부 : 585-0171/2(직), 584-0131(代), 부산83-8977, 9312, 9432, 대구352-4911/3

東國發展! 모든 東國인이 추구하는 大學 理想, 그리고 理想實現을 위한 場, 모교는 개교 이래 지금까지 이의 충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개교 80주년을 맞는 오늘 많은 東國인들이 『東國의 내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한바다. 7만명 국인의 고향이며 1천만 佛子들의 지주 東國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모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은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구상중인 초보단계의 것들이다. 이 계획들이 실현되려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그간의 짐제법안을 밀소하고 모두가 종합 東國의 깃발 아래 모여 모든 国民의 하나됨을 보여야 한다. 이 글에서 는 최근 모교가 구상하는 마스터플랜을 소개하고 이의 실현의지를 재검증 본다.

&lt;편집자註&gt;

## 마스터 플랜

모교는 개교 80주년과 함께 지난 2월 취임한 李智冠 총장이 의욕적인 발전의지를 보이면서 지난 수년간 구상되었던 각종 발전계획이 구체화 혹은 추진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외형적인 발전계획은 과간히 지향하는 한편, 미래 부속병원, 제 2캠퍼스 등에의 투자와 함께 수년간 침체일도에 있던 교세와 신장을 위해 각종 학술,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꾀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을 통해 모교가 정체되어 온 원인을 뿐만 아니라 80년 역사의 영광이 제빛을 찾기를 기대하며 주요한 마스터플랜을 소개한다.

학의 중심지로 이끌어가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 ◇불교종합병원 설립

전통국인과 1천 5백만 佛子들의 열원이 담긴 불교종합병원 설립계획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속병원이 개원된 후에 실현하게 된다. 마스터플랜은 1단계로 경주에 부속병원을 세우고 의과대학을 정상화한 다음, 2단계로 서울에 불교종합병원을 세우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의 실천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중인데 주요안은 첫째 기존의 종합병원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방법은 이미 기존의 병원기준에 매각의사를 표시해온 곳이 있어 두 달마다 둘째 신축부지를 확보해내는 것인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



▲경주캠퍼스 한의부속 한방병원。

### ◇의대 및 부속병원

지난 해 10월 문교부의 인가를 받은 의과대학은 올해 첫 신입생 50명을 경주캠퍼스 문리대 의과에 모집함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의과대학은 올해 신입생들이 예과를 수료하는 88년부터 정식으로 생기게 된다.

모교당국에서는 東國中興의 계기가 될 의과대학을 본 궤도에 옮겨놓기 위해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의 구심점이 될 부속병원은 올해 안으로 설계를 완료, 확정짓고 내년에 착공, 89년 6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란 명칭으로 개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이다. 부속병원이 완성되면 기존의 한방병원과 통일시켜 종합의료원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안도 확고히 있다.

이의 선결과제로는 부속병원설립 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재정 및 기금 확보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모교당국이 밝힌 외대및부속병원 발전계획의 세부사항을 보면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 의료기지의 구입설치, 학생들을 위한 실습설치기 설치, 과학실험센터 운영 등 부대시설 마련과 업무의 전문화, 원무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자료준비 및 병원운영의 활성화방안등이다.

또한 모교에서는 이 사업에의과 간호학 투자로 명실상부한 동서양의

이 추진은 모교와 불교의 업사계, 동창회들이 합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실제로 조계종총무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위의 두 사업을 실현하는 비용은 우선 재단의 교육용재산을 动産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이며, 그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직원, 학생, 동문 및 전부자들이 참여한 모금운동도 있을수 있다.

### ◇서울캠퍼스 확장

부속병원이 개원되면 다음의 주요사업으로 포화상태인 현 캠퍼스를 보완하려는 사업이 진행된다.

즉 제 2, 제 3의 캠퍼스 부지를 서울근교에 마련하는 것이 연구중이나, 본교의 이전은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다.

연구중인 제 2캠퍼스에는 제 1캠퍼스에서 수용하지 못한 실험실습 전용시설과 체육시설을 비롯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수립할 시설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또한 재산소유지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둘러 있어서 개발할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캠퍼스지역에서 주변의 부지를 매입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주캠퍼스

그간 꾸준한 노력으로 경주캠퍼스는 눈부신 성장을 해왔으나, 아직 민족화한 단계는 아니며 모

# 큰 光明 큰 친

## 民族자각에 선구적 기여... 사회

교당국은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로 지적되던 강의실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착공한 종합강의동이 완공되면 강의실 운용에 여유가 생기고 신설되는 학과의 수업까지도 소화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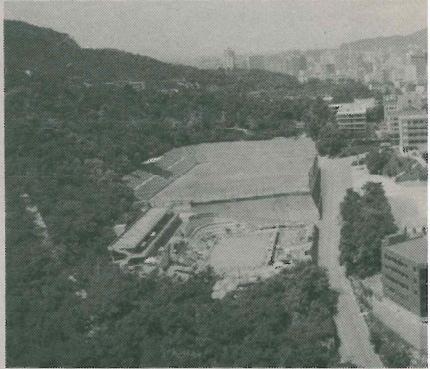
한편 배운동길의 스펠드프로젝트

에는 금년에 공사를 착수 일부를 완공시키고 연차적으로 타원형의 체육공간이 되도록 설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조경사업은 그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거의 완결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교원부족 문제는 금년 3월 20명의 교원을 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50% 정도의 확보에 그치고 있어서, 모교는 교원부족해소를 위한 충원계획을 세우고 있다.

### ◇홍보활동

모교는 홍보활동에 대해 매우 적



▲장충동쪽에서 본 서울 캠퍼스

## 의욕적인 발전의지로 각종계획 추진 89년 6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개 재정마련이 급선무... 전 동국인 동참



▲지난해 증축된 서울캠퍼스 도서관.

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학문적 성과 등으로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바�인 편제를 검토하고, 학부한 편재로 개편을 단행 문교부에 상정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계획되어 외부 연구기관에 이 문제 연구를 의뢰한바 있으나,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법학과를 법과대학으로 독립시키는 안, 현행 사회개발학과를 사회학과로 변경하는 안, 예술대학 신설, 공과대학의 일부과 증설, 대학원 개편과 전반적인 정원 조정 문제 등이다.

◇각종 연구기관

불교학과 문학의 학제화를 선시시키기 위해 불교문화국문학 연구소를 확대 개설하는 안. 또한, 각종 연구소를 연구활동을 유지할수 있도록 할 것과 부설연계를 하게 정비하는 것도 결점으로 학내 연구활동의 중심인 구조는 모교의 계획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전통의 풍토를 견지하는 것이다.

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출판을 통해 연

최하고 그 업적을 수거

를 넓힌다는 의미로

이 사업의 일환으로

『叢書』의 발간이 시작됐

는 연구활동을 통해

문제 결실을 얻은 모교

문예 필자를 선정, 충

와 높은 인세를 지급하

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학과 한국학계의 연

활 이 총서의 교재적

필독서로 널리 보급할

이로써 한국 불교학

도적 역할을 해온

불교 관계 서적뿐 아니라

양서적도 눈을 돌려

넓혀가고 있다.

### ◇각종 연구기관

불교학과 문학의 학제화

선시시키기 위해 불교문화

국문학 연구소를 확대 개설하는

안. 또한, 각종 연구소를

연구활동을 유지할수 있

도록 할 것과 부설연

계를 정비하는 것도 결

점으로 학내 연구활동의 중심

인 구조는 모교의 계획에

으로 활발한 연구활동

을 견지하는 것이다.

◇장학제도

기존의 장학금외에

금과 가사장학금, 대여

수혜의 폭을 점차

### ◇교내 출판

그간 모교 출판부는 교과서 또

는 불교관계 서적 등에 주력해왔으나,

출판영역을 확대, 대학 출판문화를 주

# 慧 큰 힘으로

## 의 순수성지키며 건학이념 구현



전경

### 80주 사업계획

모교에서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가이 기념비와 활기찬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이미 이를 위한 「개교 80주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를 구성, 실무과 관리 등을 분담하고 각 사업별로 해당 교수 및 학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 추진하고 있다.

80주 기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남비성 행사로 배제하고, 학術과 전학이념을 고양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념식과 학생 축제는 예년 수준에서 하늘 한편, 각종 학술 행사와 몇몇 기념사업만을 하기로 하고 이를 적극 추진, 어떤 행사는 거의 완료하고 있다.

동국 80년은 이제껏 쓰아온 전통을 바탕으로 보다 멀리 비행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동국인들은 앞으로 남아있을 수천년 수만년의 東國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80년을 바탕으로 1백년을 딛고 영원히 전진하는 東國을 위해 東國인들이 절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알아본다.

#### ◇ 80주년 기념관

모교 명진관과 학문관 사이의 부지에 건설할 계획으로 있던 기념관은 이미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금년 중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치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기념관에는 대단하고 가족 학생의 익공간, 공연장, 극장 등의 문화공간, 세미나실, 연구소 등을 설치 학내에 문화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도교는 오는 5월 8일로 개교 8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개교 80년은 모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아닐수 없다. 韓末 祖國이 외세, 특히 일본의 시달림에 허덕일 무렵 先覺者 洪月初師를 중심으로한 불교 계에서 前身인 明進學校를 설립한 이래 80여년간 모교는 불교계, 학계, 문학계, 정치계 등에 출입생을 진출시키고 각종 위임을 달성하는 등 교육의百年大計를 수립해왔다. 또한 모교는 파기이며 민족의 자각과 자주적인 면에 선구적인 기여를 했던 것처럼 현재도 사학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며 건학이념의 구현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제 개교 80년! 모교는 전통과 건학이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어려거지 사업을 밟아 걸어, 혹은 추진종에 있다. 다음은 모교가 발표한 각종 기념사업의 세부 사항들이다.

&lt;편집자註&gt;

록 할 예정이다.

기념관이 완공되면 들어설 대강당은 그간 학생들이 숙원해온 것으로 모교에서는 이의 구체화를 위해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 ◇ 만해 시비 건립

萬海 韓龍雲(08명진)의 詩碑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그간 교내외에서 꾸준히 있어 왔

했으나, 10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으로 교내의 여러 곳을 물색하고 있다. 노란 이 비는 모교와 학생·대학원원 모부가 동참, 東國의 히나리를 표시하고, 모교의 상징적 명소로 동국 정신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 東國 80년사 발간

이미 「동국 80년사 간행위원회」

## 소비성 행사 지양, 학술 행사로 내실화 다져

### 「開校 8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구성

#### 기념관, 만해 詩碑, 간다라 학술답사 등 다양



▲ 모교 8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다.

지난해에는 모교 축학생회에서 이를 위한 도금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동문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논의되어온 것이라고 한다. 모교에서는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모교선신인 명진학교로부터 현재의 東國 대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노사의 배경, 각 기부 및 시설요람, 學制, 각종 연구기관의 역사와 실적, 부속기관, 도당, 소포조와 사회활동, 자치활동을 포함한 학생활동, 동창회의 활동과 역사 회칙 등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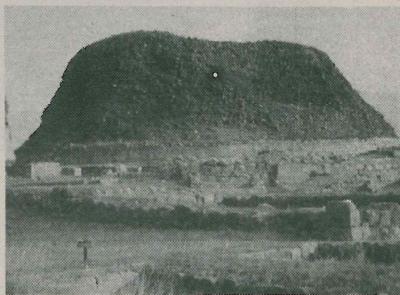
아직 건립장소를 정하지 못

가 조직되어 이용범, 남도영, 임정영, 김창수, 김한배, 김갑주 교수등이 위원회에 위촉되었다.

「동국 80년사」에는 모교전신인 명진학교로부터 현재의 東國 대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노사의 배경, 각 기부 및 시설요람, 學制, 각종 연구기관의 역사와 실적, 부속기관, 도당, 소포조와 사회활동, 자치활동을 포함한 학생활동, 동창회의 활동과 역사 회칙 등을 소개한다.



▲ 사진은 지난해 개교기념식.



▲ 다른마리자카타·간다라학술조사단이 鹿野苑에서 활동.

지하고 건학이념을 널리 보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경전들의 영인은 이미 완료했으며 오는 5월 8일 표구한 두 경전을 일반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 ◇ 기념논문집 발간

기념 학술사업의 일환으로 논문집을 발간하기로 하고 이미 완료단계에 있다.

논문집에 실린 논문은 모두

50여편으로 이미 30여편이 접수되었다. 주로 불교와 역사,

불교와 제과학, 불교학일반에 관해 일본, 인도, 대만, 독일, 스위스의 학자들이 집필했다.

교내의 학자진으로는 한상법, 장한기, 김영태, 김인덕, 허기심

이 사업은 黃瀨水 前총장과 박상경(74불교·문화공보부 문화재전문위원) 동문이 맡아 했다.

#### □ 사회과학 심포지움

이 사업은 중요한 학술 행사의 하나로서 주제는 「韓國法制史」이다.

교과 법학과 교수들과 전국 각대학의 법학자, 법조인들이 참여, 5월 10일 모교에서 열게 되는데, 기조 연설, 논문 발표, 질의토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法制史를 정립한다.

#### □ 인문과학 심포지움

불교와 문학을 모교의 學統을 이루어 온 학문들을 중심적으로 연구, 발표한다.

오는 9월초 모교에서 국내외의 학자를 초청, 시행할 계획이다.

#### □ 신라문화 연구목록

경주캠퍼스 신라문화 연구소(소장: 김갑수)가 수관하는 이 사업은 그간 흩어져 있던 문헌들을 통합해 정리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를 가을에 완료 출판할 예정이다.

#### □ 홍보영화 東國 80년

모교의 전학이념과 전통을 강조하고 8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 「東國 80년」의 활영을 완료했다.

모교 홍보실에서 주관하고 연극영화학과 유현숙교수의 협조로 모교의 홍보와 현재의 모습을 연출했다.

#### □ 연극 「조신의 꿈」

모교 출신 연극인들이 모여 李光洙원장, 金興雨 각색 「조신의 꿈」을 공연한다.

동창회주관으로 6월에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막을 올리기 위해 참여동문 전원이 국립극장 공연준비실에서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 80周 학술답사 西域 8千里 紀行

—2—

## 수백의 岩刻畫들

칠리스의 삼그릴라호텔을 떠나 카코볼 하이웨이로 약 1km 북상, 중공족진 건설해 왔다는 시멘트다리를 통해 인더스강을 넘으면 강변의 여기저기에서 우뚝 솟아있는 바위들이 눈에 띈다. 괴리르고고개라고 한다.

바로 거기, 큰 바위에 수백의 불상·불상·법륜등 불교암각화들이 새겨져 있다. 바위의 석질이 단단한 편인지 비록 얕게 새겨진 선각이었지만 비교적 선명히 남아있으며 모두가 서기 7~8세기 이전의 양식이라는 것이다.

한 사람일이 어떤 특성지대에 한꺼번에 새긴것이 아니고 오랜 시대에 걸쳐, 이곳을 거쳐간 여러 佛子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불교유물이기에 행여나 중국僧이나 新羅僧의 것이라도 보일까하는 막연한 회망을 갖고 이바위 저바위를 찾았더니 보았다.

막연 하나마 이걸은 희망을 가져본 것은 4세기 말~5세기 초의 13년간 印度여행을 마치고 그 여행기를 남겨 오늘날에도 학계에서 소중히 다루고 있는 中國僧 法顯의 『佛國記』에 보이는 『陀歷國』이 바로 칠리스가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中國僧, 新羅僧이 이지역을 거쳐갔을 가능성은 法顯의 경우만이 아니다.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에 기록된 순서가 비록 週遊彌羅國(카시미르)을 기점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小勃律國(기르기트)에서 乾陀羅國(페샤워), 烏鳥國(스와트)拘衛國(치트랄) 순으로 되어있다. 慧超이 기르기트에서 탁실라로 남하했을 가능성으로 치면 칠리스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지점이 된다. 그러나 漢字라도 한자 찾아보려던 노력은 아무 소득이 없었다.

## 천 2백년 전의 합성이

거의가 물과 모래땅으로 풀한포기 찾아보기 힘든 다조로운 풍경, 뿐에게 흐르는 인더스강줄기, 산모퉁이의 노천온천

을 지나 「분지」의 茶집에 앉았다. 茶를 들고 있자니 탁트인 구름사이로 산의 허리부분 까지 운동 눈에 뛴다. 「남가파르비트」산의 웅대한 모습이 손에 잡힐듯 했다. 높이가 8천 1배 26m나 되는 이 산은 차리리아산맥의 서쪽길이다.

다시 한시간 가량 달려 인더

역할을 한다. 魁首를 걸고 佛法의 진리를 찾아 나섰던 慧超에 이어 高仙芝장군 또한 와 강(胡蜜國) 달코트를 넘어 기르기트까지 진격했던 사설에서도 이지역이 지난 문화·군사면에서의 역사적 위치를 실감케했다.

그러나 시의 중심부에 솟은

강과 「인더스」강의 합류점에 냈다. 『唐書』「高仙芝傳」이 최대의 전적지로 소개된 娑夷河다. 한 때 동아시아의 군사와 정치의 판도를 결정지었던 역사의 현장.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鷲崖石佛과 法華經이 발견된 절터를 찾기 위해 숨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갔다. 운전기사가 가리키는 鷲崖石佛은 어둠속에서 그 형태만이 겨우 보였고, 절터도 그 부근이라고 했으나 시간이 없

혀 역류하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풋자신과 같은 해발 2천미터 넘는 곳에서도 영하 10도를 넘는 일이 없답니다.

사방에 흰눈이 덮힌 흰군 할 산길도시인 기르기트에는 12월 하순인 지금 장미꽃이 만발하고 강물이 텁텁하게 얼려 있는 것만 같았다.

다음날 (12월 20일) 아침 일찍 나는 李載昌·鄭明鏞 교수와 함께 달코트로 출발했다. 기르기트에서 80km짜리 강과 강폭은 매우 좁아지고 있었다. 내가 좀 아진 강폭에 주의를 기울인 것은 高仙芝장군의 달코트작전이 생각나서였다. 당시 전투에서 高仙芝장군은 娑夷河(기르기트강)에 걸려있던 鷲橋(황금교)를 끊어서 풍화군을 막았던 것으로 『舊唐書』「高仙芝傳」에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娑夷河(중국어: 小勃律國)에서 吐蕃國의 군사작전을 들키 위해 1년밖에 걸리면서도 2년이 됐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있지 않다. 돌아오는 길에 어제

너무 늦어서 충분히 관찰하지 못했던 鷲崖石佛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더니, 2시간만에 우리는 다시 鷲崖石佛당에 섰다. 낮에 보는 그장엄한 모습에서 나는 다시 이곳을 찾은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

娑夷河(중국어: 高仙芝 조사단은 오후 2시 기르기트를 떠나 다시 카스로스에 왔다. 인더스강변의 암석위에 세워진 繡刻佛畫을 다시 한번 더 보고 싶어하는 美術史전공 학자들의 간절한 소원에 따른 것이다. 기르기트강과 인더스강의 합류점에서 차를 멈췄다. 이곳이 암벌로 기르기트강 전유역에서 강폭이 2千里가 되고吐蕃에서 원군이 오는 경우 짜른과 해아를 길로 빠나나라. 「高仙芝傳」에 보이듯 小勃律國의 王城에서 유통으로 60리라는 절에서도 高仙芝장군이 기르기트戰을 끌어가 위해 娑夷河(중국어: 鷲崖石佛)을 풀었던 지점으로 比定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다음으로 복잡했던 국체정세를 타개하기 위해 1천 2백년 전 高仙芝장군이 혼란을 벌였던 이지점에서 서 이곳을 거쳐 산허리를 뚫고 남으로 헤쳐지며 시야에서 사라지는 카코볼 한 아워이를 바라보면 지금 이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외외적 상황이 어찌桔子도 1천 2백년 전 당시의 상황과 그桔子도 일맥상통하는지를 않을 수 없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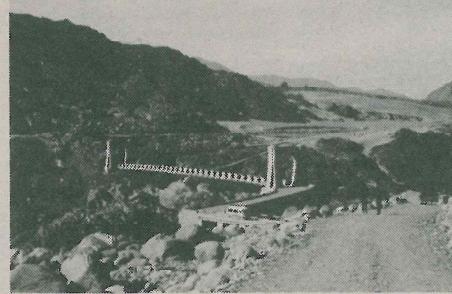
## 高仙芝장군의 발길을 따라

李龍範

스강과 「기르기트」의 합류지점에 이르면 강폭이 갑자기 넓어져 시야가 탁 트이는 것 같았다.

여기가 바로 高仙芝장군의 격전지의 하나다. 1천 2백년 전의 합성이 저 범판으로부터 틀려오는 듯하다. 일행이 기르기트 강을 따라 신도봉기를 도니 건너편에 7천 7백 88m의 「라카포시」 산이 앞길을 막고 저멀리엔 기르기트의 시가지가 설치된 다가온다.

기르기트의 속소인 웃지호텔에 도착, 여장을 한 것은 오후 3시 반경. 피곤함을 무릅쓰고 기르기트강을 따라 뻗은 달코트길과 그 부근의 鷲崖佛像, 30년전 白幢나무길에 쓰여진 法華經이 발견된 옛 절



## 高仙芝의 달코트戰...藤橋 끊어 吐蕃막아 역사의 현장, 沙夷河에도 강물을 흐르고

터를 보기 위해 오후 4시 鄭明鏞 교수와 짐차를 빌려 출발했다.

## 고통의 요지 기르기트

기르기트는 서북의 달코트고개를 통해 소련·中共과 이어지고 동북으로 비단길과, 서남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페르시아,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세계교통의 요지이다. 교통로는 무역, 문화, 군사, 국제정치에 결정적

회교사원만 둘보일뿐 기르기트는 우리나라의 20~30년전의 군 청소재지를 연상케 했다. 파리 스타크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아리안, 이란, 터키, 그리스, 캐족으로 보이는 여러 족족이 그 비좁은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으나,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여자라고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시내를 빠져나와 「기르기트」

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2천 7백高地에 장미꽃 기르기트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기사로부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다. 「이곳의 기후는 겨울에 가끔 영하의 날씨가 되기는 하지만, 영하 5도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도양과 남인도에서 혼선된 기류가 「카라코룸」과 「한두쿠시」 등의 산맥에 가로막

지 않을 수 없었다. <계속>

東友會報 창간 10주년  
개교 80주년

# 미국 3대 도시로 논스톱 항공편 운항



미국으로 여행하실때 노스웨스트 항공을 타시면 어디 모로 유리한 경이 많습니다.  
첫째로, 항공편으로 헤어나야 하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미국의 3대 도시인의 논스톱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도쿄, 츠시 마루과 카나리가 50여 개 도시로 펼쳐져 모여 있습니다.  
둘째, 기내서비스와 요금에 대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셋째, 항공이 여수부문의 친환경 서비스와 더불어 이로디미 요금으로 인해 유리합니다. 클래스 서비스를 두고 있으며, 여행지에 따라 무료행의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미국여행은 편리한 노스웨스트 항공을 이용해주시고, 가장 많은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노스웨스트 오리엔트입니다.

NORTHWEST ORIENT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제작은 기아화 여행사 노스웨스트 항공으로 제 주관사로.  
※ 소전호텔 (서울) 778-8262~778-8263 (부산) 152-2394/5

\* 미주 대리점 55개국 7개국 항공편 운항

※ 소공사무실 (서울) 778-0181/7 번호로 (부산) 051-44-2240



코끼리회

앞서가는

# 야구부후원등 모교에 각별한 관심 68년 동기회, 회원들 성토로 부부싸움도 못해

이 매달 모이고 있는 열성파들로서, 매번 모일 때마다 그 달의 특별한 사업을 결정, 실천에 옮기는 등 티의 추종을 불허하는 결속된 힘을 보이며, 본회 발전에도 크게 활약해온 모범지회로 정평이 나았다.

외원총 특히 楊五鉉 景范은 범교법학과를 졸업한 후 渡美, 경제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Wisconsin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 영남대학교로 재직해오다 이번 학기부터 모교 경제과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다.

모임마다 회의가 끝나면 회원들간에 Go(?)파티가 벌어지기도 하는 등 언제나 친구들 사이의 솔자리처럼 회기애하며 또한 연말고입니다나 애모임에는 항상 부부동반으로 모임을 가져 부부들 간에도 서로 잘알고있어, 어느 집에 부부싸움이 났다하면 전회원이 물려와 석토를 해내는 통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되기도 한다고.

야구부에 금일봉 전달

회원증 金聖洙 등문과 崔昌鉉  
• 金鎮和 鄂文운이 전반에 근무할 때에는, 부대로 위문을 가, T.V.,

자전거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국토방위에 수고하는 장병들과 시간을 함께하기도 한 회에는 회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면 회

야구부 우수선수에 대한 금일봉 전달은 아마추어 정신에 위배되지 않나하는 우려도 없지 않으나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로 80주년 맞게 되는 모교에 대해 「의과대학도 신설되고, 한반석 모교에 가보면 날



▲ 사진은 30일에 있는 코끼리회 월례회때의 광경。

둔 투수와 홀런타자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는 등 체육후원사업도 벌이는 등 모교 후배들에게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로 발전하는 모습에 흐뭇하다』면서『재학생들도 더욱 분발, 노력하여 오즈을 양간 위해 축된 듯한 모교의 교세를 확장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라

마치 일가족과 같이 끌끌뭉쳐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풍우회가 있다.

모교의 상징수인 코끼리처럼 군집생활을 하듯 모여 東友會 모임이라기보다는 친구들 모이듯이, 한식구를 같이 東國愛로 뭉쳐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는 「코끼리회」(초대회장=李載炯, 68불교)。

코끼리회는 68년 졸업 동기회로서 ROTC와 총학생회간 부들이 재학시절 우정으로 몇 어진 관계를 출입을 하면서 재학시 총학생회장인 李載炯동문이 주축이되어 동분서주 규합하여 동우회로 발족시키게 된 케이스이다. 회원은 20명으로 창립시 부터 계속온 회원들이다.

모임마다 특별사업 결정

이들은 현재 미국에 거있는 李根雨동문을 제외하고는 전원



金聖洙副会長



초·2대 李載炯회장



3 대 宋昔煥회장



4 대 姜乘國회장



5 대 洪元杓회장



6 대 崔仁회장

며 한마디씩

## ◇회원평단

▲姜秉國(농경)=동립산업  
(株)상무이사 ROTC 6기, 재학시 ROTC 병예위원

▲具鵬會(정경)=개인사업 ROTC 6기, 재학시 ROTC 병예위원  
▲樺五鉉(법학)=모교교수·경제학박사

▲金聖洙(경쟁)=효신공사대표 ROTC 6기 現회장  
▲金鎮和(경쟁)=현역. ROTC 6기

▲朴泰吉(농경)=개인사업  
▲徐載俊(법학)=동암화학  
산업(株) 대표이사. ROTC 6기, 재학시 총학생회체육부장

▲宋昔煥(농경)=동진프라  
스틱(株) 대표이사. 재학시 총  
학생회 변론부장

▲魏錦星(농경)=금강미공  
▲李根雨(영문)=뉴욕체류.  
ROTC 6기, 재학시 문리대학  
생회장

▲李載炯(불교)=재학시 총  
학생회 회장

▲李濟坤(경제)=(株) 스텐  
다드 대표이사. ROTC 6기,  
재학시 총학생회 부회장

▲李興雨(입학)=동양프라  
스틱공업사대표. ROTC 6  
기, 재학시 총학생회 총무부장

▲秋龍吉(농경)=임성피혁  
(株) 대표이사

▲全炳肅(경제)=一(株) 대우  
총무이사

▲曹昌鉉(경쟁)=현역. ROTC 6  
기, 재학시 총학생회 지  
도부장

▲崔仁(상학)=한국교준기  
계 대표. ROTC 6기

▲韓相德(상학)=개인사업.  
ROTC 6기

▲洪元杓(정치)=미아상사 대  
표. ROTC 6기, 재학시 법  
정대 학생회 회장

東友會報 창간 10주년·모교 개교 80주년을 축하합니다.

## 코끼리회



洪韓崔曹全林李李李魏宋徐朴金金權具姜  
元相昌炳龍興濟載根鍾昔榮泰鎮聖五鵬秉  
杓德仁鉉喜吉雨坤炯雨星煥俊吉和洙哲會國

##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에

洪淑子 부회장



洪淑子  
55歳  
朝鮮  
여성 단체 협의회  
회장·본회 부회  
장)동문은 지난  
25일 런  
던에서 열린 세계 여성단체협  
의회(I CW) 제24차 총회에서  
절대수의 지지를 얻어 이협  
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洪동분은 당선소감에서 「개인  
의 영예이기 앞서 모든 한  
국여성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하  
며 앞으로 세계평화와 세계여  
성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복  
사하겠다고」 고 밝혔다.

한편洪동분은 외교관출신으  
로同會의 한국 회장과 소비  
자단체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  
는 등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본회 부회장으로 모교와 본회  
발전에 깊이 관여해 왔다.

## 雷虛學賞 수상

李英茂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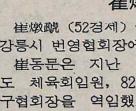


李英茂  
(48歳)  
전국에 교  
수)동문은  
최근 제 4  
회雷虛學  
賞을 수  
상하고, 상  
금 1백만  
원 진액을 모교 불교대학과 강  
학금으로 기탁했다.

李동분은 당초 「원효사상에나  
타난 인권론」 이란 논문으로 故  
金東南박사의 기리기 위해 제  
정된 韶虛학상의 금년도 수  
상자로 결정됐었다.

## 강릉시 번영회장에

崔燉鷗 동문



崔燉鷗(52경세)은 최근  
강릉시 번영회장에 선출됐다.  
崔동분은 지난 25년간 강원  
도 체육회원원, 82년 강원도축  
구협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에는 江原文化賞(체육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동아그룹 전무이사로  
李鍾勳 동문

李鍾勳  
(59법학)  
동아그룹 회장 비서  
실장)동문은 최근동  
아그룹 상  
무 이사에  
서 전무이  
사로 열전했다.

李동분은 대한통운(株) 대구  
지점장, 영업관리실장, 民需영업  
부장을 거쳐 비서실장과 이사  
를 역임하는 등, 동아그룹내에  
서 빠져 굽은 정기 기업인으  
로 대하었고 동우회 회장으로는  
야구기금조성추진과 회기발  
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優  
秀東友會로 표창받기도 했다.

국제법협회 회장에  
林德圭 동문

林德圭  
(60법학·  
「더플로어  
시」社 회  
장·본회이  
사)동문은 최근  
뉴내자 호텔에  
서 열린 韶  
虛學賞 수상  
회에서 회장에  
유임됐다.

「靑少年聯」 이사장에  
朴玄惺 동문

朴玄惺  
(75학식·  
서울道院  
寺주지)동  
문은 지난  
달 29일  
조례사 대  
웅전에서  
교계 인사  
로 열린  
「靑少年聯」  
이사장에  
취임했다.

와 신도동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불교 첨소년 교  
화연합회」이사장에 취임했다.

玄惺스님은 그간 信行을 통  
해 재소자 교화경생에 헌신  
하였다.

봉사 지난해 제 3회 營正大  
慈悲賞을 수상하는 데 수  
상자의 표장을 받은 바 있으  
며, 사회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鷺山文學會 새회장에  
金海星 동문

金海星  
(79법학·  
서울 여 대  
교수·본명  
「醜姑」)동  
문은 최근  
동우회 회  
장이자 鷺  
山文學會 정  
기 총회에

특히 62명의 졸업생 가운데 수  
석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金동  
분은 3천권만점에 2776.1을 획  
득한 수재이다.

朴鍾在(59경제) = 한국관  
공사 총무부장에서 관광교육원  
장으로.
柳英樹(66학점) = 영동포 낙  
부부서 소득 2과장으로.
鄭聖采(67법학) = 大東양 품  
영업부 승진.
 구재태(67경행) = 삼한반장  
에서 특수 수사대 반장으로.

## 榮進轉補

李成在(83정치) = 회현 영업  
소장으로.
宋澈基(84경영) = 남영 영  
업소장으로.
鄭明哲(84농경) = 의정부 영  
업소장으로.
 金問昌(84농경) = 동서물영  
업소장으로.
曹英鉉(84회계) = 군산포영  
업소장으로.
 金明基(84경제) = 종서울 영  
업소장으로.

出入國

 李成在(83정치) = 회현 영업  
소장으로.
 金問昌(84농경) = 동서물영  
업소장으로.
 金東英(60정치·신민당원내  
총무·본회부회장) = 민주당초  
청으로 신민당 대표단을 이끌고  
출국했다. 일본을 들러 29일  
귀국.
 尹均鎰(69원원·국제공항관  
리공단 이사장·본회부회장) =  
27일부터 美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국제민간항공 운송자회  
의(AOC C1) 제16차 아시아태평  
양회에 참석기위해 25일 일정으로 출국.
 閔丙謹(62정치) = 한국관공  
협회 삼국부회장으로 일본관공  
계를 시찰하고 귀국.
 吳申根(64불교·교복교학  
과장) = 일본 경도대학에서 연  
구기위해 6개월 예정으로 출국.
 製陶洙(66국문·美國법률  
이사장) = 법인일 봉행원시용품  
준비자 지난 8월 귀국. 韩동분  
은 상한 생·호서지방 교민의  
교화를 위해 매주 정기법회를  
여는 등 불화음악을 주로 펼쳤다.
 金光鎰(69경행·성북동문회  
회장) = 지난달 22일 사업자 동  
남아로 출국.
 金繁雄(교보 행정학과 교  
수) =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나  
하임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참석자 지난 14일 출국.

## 結婚

 洪鳳來(53법학·본회상무이  
사) = 三男 段、결혼 지난 27일  
여의도회관에서
 錢昌源(57경제·본회이사) =  
弟光源 화족 지난 2월 경남에  
식장자
 李錫龍(58정치·본회상무이  
사) = 남경 결혼 지난 8월  
정오 명동성당에서
 朴英圭(84정의) · 楊根淑(85  
가교) = 지난 20일 1시 대구  
고려여자식자회 화족
 金炯植(86수학) · 金榮實(85  
가교) = 지난 26일 정오 돈암동  
천주교회에서 화족

## 計音

 朴相柱(61정치·국회건설위  
원장·본회이사) = 母親 빛. 18일  
하오 5시 경남남해군 남면 흥  
현리 자택에서 발인 23일.
 尹榮欽(61철학·前佛教신문  
기사·판을의상입법사) = 지난 10  
일 오전에 별세 12일 영결식.
 金智福(63철학) = 지난 25일  
모친喪 27일 발인.

## 86一象會展등 동문畫壇에 전시회 풍성



▲趙丞煥교수



▲吳元培동문



▲許萬旭동문

였다. 전시된 작품은 근 10  
여년간 틀, 나무, 풀등의 다  
양한 재료로 제작한 20여점으  
로 「모자」「가족」「부부」등 사  
람과 평화를 주제로 하고  
있다. 서울조각전, 청동회전등  
에서 차지했다.
▲吳元培(79 미술·미술과  
강사)동문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동미술관에서 청  
작품전을 열었으며,吳동문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정신생활을 조형언어로 창조  
한 환상적인 인상」을 보여  
주었다.
吳동문은 파리유학시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프랑스 국립미  
술학교 수석회화상을 수상했  
고, 프랑스 예술원 회화 3등  
상을 차지한 바 있으며 현  
재 보교 전임강사로 후배들  
을 지도하고 있다.
▲金應來동문은 지난 24일부  
터 29일까지 원서동 공간미술관  
에서 동관화전을 열었다. 「하  
늘은 흐른다」를 주제로 한  
호르는 하늘」 시리즈를 선보  
인 金동문은 공간 국제판화  
전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 &lt;한국生民&gt;

▲黃國煥(76정치) = 영입총괄  
팀과장으로 승진

&lt;대리급&gt;

▲柳圭衡(78농경) = 영업기획  
부 판매개발과
▲金任海(81농경) = 광화문영  
업소장으로
▲朴明錫(81식공) = 총무부인  
사과로

&lt;주임급&gt;

▲蘇恒燮(79불리) = 선산실선  
신개발과
▲文太成(81수학) = 부전부  
보전과로

최고 년 13.5%의 수익률 보장!

CP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 · 1,000만원 이상 만기 · 90일 이상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amp; FINANCE CORP.

서울동네거리 투자상담 777-4491

대 대 표 771-06



## &lt;目次&gt;

1. 모교의 창설 배경과 불취
2. 中央佛教専門學校
3. 교수와 수업
4. 「中專」 학생회의 활동

## 4. 「中專」學生會의 활동

雲水徒는 현재 11岳會에 대종소이 하였는데 광희일에 교수 3, 4명을 모시고 등산을 하였다. 이모임이 확대되어 타교생들도 동참을 하였는데 城大에 파생이 많았다. 휴가에는 금강산, 설악산 등 명산에 집단으로 등반하였다. 국내외의 산악회로는 「中專」이 초시였다.

演藝部은 매년 석기단일을 기념, 연극을 펼쳐하였고, 격년제로 2년에 한자례로 축제를 가졌다. 연극, 普劇, YMCA 연극부에서도 발표회를 개최되었으며 시민의 반응은 中專이 제일 높았다. 城大의 연극연화회가 인기가 높은 것은 이에 유연한 것 같다.

변론부에서는 매년 전국高專 학생동반대회를 주최하는데 겨레의 관심도는 경이 적이었다.

개회 한시간 전에 장내는 만원이 되었고, 장외에 모인 청중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환상기를 사용 하였는데, 소공동의 전골목이 메어지고, 府立도서관前面에 미터, 시청 광장까지 모여 소동이었다.

이 응변대회가 온국민의 인기를 끌자 언론기관, 종교단체에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총독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일본경찰은 우리 겨레의 사기를 견기하여 5분도 되어 증거를 시키는 등 억압을 가하였으나, 이 응변대회의 인기는 반비례로 높아만갔다.

高專 응변대회로는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문예부에서는 하계휴가를 이용하여 전국을 순회「학술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응변대회의 버금가는 풀풍을 일으켰다. 이 강연회가 민족의 계통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潛南, 關北 지방에서는 전지역민들이 화려히 하였다.

계몽부에서 활동한 것 중 한기지만 소개하겠다. 조선, 동아, 朝鮮中央 3내 신문사가 주관으로 「보나보드」 운동을 협력으로 전개하였는데, 전부원이 참여하였다.

기가 높았다.

## 「中專」卒業生들

중전 졸업생은 10회에 2백 16명이 배출됐다.

필자는 89명과는 차지기우요 34명은 지역인이다. 휴전직후동도의 거처를 알아 봤더니 休전선 이북에 30명, 남북이 15명, 작고인이 22명으로 생존자는 1백 49명이었다.

中專 출신은 부문별로 봤더니 대학총장(2) 대학원장(1) 학장(3) 대학교수(18) 중등교장(31) 중등교사(7) 학교법인 설립자(3) 불교총단 총정(2)

▲李商純(西翁)=全隔, 白羊寺, 사비생, 養正高, 中專, 京都都監濱濱大卒, 本山住持, 조제 중종 정 역임.

▲金三道=慶南, 通慶寺, 사비생, 제일고(경기고전신) 中專卒五常中, 彌陽, 河東農高 三千浦高 교장 역임. 카나바, 移民.

▲金基煥=忠北, 秋風齋, 金組聯合會道支部書記 新聞記者, 秋風旗, 聖一中, 慶豐中 고장 임역.

▲尹基元=全州, 溪水學園設立(1952)

▲金義贊=慶南, 安義 滿州中高교감 8년 金泉女中 濟寧中高 義城工高 慶州工高 清浦項高

國在壽=江原, 출판사 경영 사장.

▲羅炳基=서울, 泰恩寺, 서울 시청과장 임역, 泰恩寺 법무.

▲高凡龍=金化 세무서 과장, 서장 임역.

▲李允祚=全南, 求禮中, 羅州 중간全南도내 中高교장 역임.

▲吳明澤=全州, 滿州 滿鮮日報記者, 全北日報 퇴진국장, 부사장 임역. 한양부진 全州支部長.

▲尹基元=河東, 溪水寺, 住持 大宗中 교장, 대학교수 역임.

▲鄭璇=全南, 哲學博士, 京城 保育, 全南大, 東國大 교수 역임.

▲圓光大丘主=堯島, 시나리오작가 中專 1년때(1935) 東亞日報 현상모집 시나리오에 「愛戀頃」 당선,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3·1 운동」 등 베여편집.

▲崔東鉉=唐津, 세무서장 역임.

▲朴仁榮=黃海, 康文中高(現龍文中高前身) 교장 역임.

▲金魚水=梵魚寺, 詩人, 中專 재학중 詩多數 菩提, 中高교장 역임 불교총무원.

▲徐廷柱=全北, 文學博士, 詩人, 詩集多有 東人, 京畿大父.

▲金尚祚=晋州, 文學士, 海印大學長, 山大高교 역임.

▲金達鎮=慶南, 詩人, 詩集多有.

▲白頌基=慶南, 中高교장, 서울시 학무국장 역임.

▲徐均均=義城, 五의원 義城 東國中高교장 역임. 校法人 東國學園設立 法人理事長.

▲羅雲慶=慶北, 達城中, 慶北高 교장 역임. 慶北高 野球부育成.

▲徐炳烈=全南, 高興農高 교장 역임.

▲禹德永=安東, 敬德中 교장 역임. 學校法人 敬德學園 設立, 法人理事長.

▲柳錫奎=全北, 四文中, 尚州中, 濟寧中高, 尚州女中高 교장 역임.

▲崔士汝=慶北, 大邱 能仁中高 교장 역임. 사회사업가.

▲韓又鳳=慶南, 의사, 병원경영, 원장.

▲金有聲=傑山, 釜山 海東中高교장.

▲朴鍾鉉=忠南, 충남도내 중고교장 역임.

▲朴炳奎=全南, 楊州 光東山林高교장.

▲安富述=全北, 大田 보문중교장.

▲李慶熙=慶南, 文學士 馬山大교수.

▲全郡均=咸南, 文學士 慶熙大교수.

▲洪庭植=公州, 哲學博士 東大교수 東大佛教大學長 역임 東大 명예교수.

中專 졸업생은 교회를 넘은 활동기 10년 사이에 30명이 타계하였고, 그 외 52명이 된다.

고인이나 남부된 이중에는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빛날 공적을 세운 사람도 많지만 생략하였고, 이부의 동문들은 생사조차 알지 못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끝으로 필자가 과문한탁과자료를 놓구한탁과자료를 제한된 지역에 제한된 계획에 개설못한 동문에게 양해를 구한다. <끝>

## 목공기사 李容熙

『처음 몇안되는 건물 만 냉그러니 있을때에비하면 지금 학교의 모습은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61년 부임한 이래 24년간 등교빌딩과 함께 해온 목공기사 이 응변회의 인기는 반비례로 높아만갔다.

▲[中專] 변론부에서 개최한 제3회 韓朝男女專門學生雄辯大會. 앞줄 가운데 한복입은 사람이 道耕 權相老 선생이고, 뒷줄 줄자체들이 필자.



였다. 中專 졸업생 중 두드러진 것은 박사(5) 의사, 아나운서, 서장등이 되었다.

▲金鍾出=全南, 韓國女中敎頭, 전남 도교위 중등학부과장 역임.

▲鄭斗石=咸南, 東大總長(3代 1961) 역임, 太古宗 當宗.

▲趙明基=慶南, 中專, 慶應高

▲宋大春蔵(5代) 역임. 東大 명예교수, 불교사전편찬.

▲文澤善=慶南, 彌陽, 荣山農高교장, 儀典.

▲宋壽英=京畿, 제일은 洪城 지집장 역임.

▲李有服=全南, 中專, 惠專, 全南大교수 역임.

▲金俊浩=開城, 의사, JOP K이나우서, 빌트레 코드회사 문예부장, 松都高교교사역임. 永登浦醫院院長.

▲李培南=서울, 論評家, 朝鮮日報 신춘문예, 평론선상(1934) 朝鮮中央日報, 滿鮮日報記者 역임.

▲孫完允=서울, 龍仁, 江華中高교장 역임.

▲康洛仁=江原, 平昌, 三陟, 韩國理事, 江陵郡농협전무, 농협원도지부장 역임.

▲金秉圭=京畿, 東大 대학원 교수 역임.

▲張周煥=서울, 小說作家, 四大월간잡지 신춘문예 소설당선(1935) 四海公論 편집국장 역임.

이름을 끌고 돌아갈 때면 보람과 생활의 즐거움이



처리하기에 벅차, 곧 한 사람이 추가배치될 예정이지만, 「학생들이 학교 건물이나 품목에 조급함 더 신경을 써준다면 일감이 훨씬 즐거울 것」이라며 책상과 출입문등을 아껴줄 것을 당부하기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의아들 在聖(35세) 씨는 서울大를 졸업, 6년전 미국에 건너가 있고, 현재 부인과 함께 단련하게 살고 있는 그는 하루의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일의 보람과 함께 생활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惠>

년 징식으로 밭물을 받고부터 교내의 목공일을 도맡아왔다. 76년 징역퇴직 후 입시직으로 계속은 무하고 있는 그는 『직접공사에 참가해 도서관과 본관을 짓는데 일조를 기억해 남는다』며 지난 스물네 해를 회상한다. 현재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목공실의 인력으로는 밀려 드는 일감을

國 上海에서 「楊子江」 출연 재화시 「洪吉童傳」「春香傳」「방아타령」 등 다수 출연.

▲車壽基=唐津, 忠南도의원, 당진군 농협조합장 역임.

▲白福龍=慶北, 1933년 일학 요시찰인 종퇴, 日本유학 해방 후 釜山경찰서 소대장 장영업.

▲張洙英=서울, 中央高 1933년 입학, 梨泰院갑법원, 满鮮日報記者 역임.

▲白福龍=慶北, 1933년에 입학 요시찰인으로 태의로 종퇴. 민족운동전개 해방후 永宗殿에 학교설립 도민체육활동전개로 永定에 공헌함.

▲金慶泰=仁川, 1933년에 입학 요시찰인으로 태의로 종퇴.

민족운동전개 해방후 永宗殿에 학교설립 도민체육활동전개로 永定에 공헌함.

▲金四祚(水德)=慶北, 仁川 고장 교장, 사회사업가.

▲張元圭=江原, 哲學博士, 東大교수, 東大대학원장 역임. 東大 명예교수.

中專 졸업생은 고장을 넘은 활동기 10년 사이에 30명이 타계하였고, 그 외 52명이 된다.

고인이나 남부된 이중에는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빛날 공적을 세운 사람도 많지만 생략하였고, 이부의 동문들은 생사조차 알지 못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끝으로 필자가 과문한탁과자료를 놓구한탁과자료를 제한된 지역에 제한된 계획에 개설못한 동문에게 양해를 구한다. <끝>

## 4.

## 「中專」 학생회의 활동

을

글

으로

109

부터

연재

해

았던

『金基煥(36佛) 등문』

을

마

친다.

하고

는

『金基煥(36佛) 등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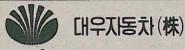
을

드립니다.

<편집자註>

東友會報 창간 10주년 기념광고기획②—『서로돕는 同門社會』

# 이 왕이면 同門企業을 이용합시다



대우자동차(株)

“벗과 개성이  
함께 달린다”

- 맵시-나
- 로얄XQ
- 프린스 1.5
- 로얄 프린스
- 로얄 쏘롱
- 쏘롱 슈퍼
- \* 중고차 중개

판매대리 : 崔鉉石 (74연영)

TEL. 544-1928 · 1128  
(야간) 487-7539  
장남구 노원동 88-7  
(고려 B/D 1층)

신용 · 친절 · 봉사  
**대한가축원**  
**영진가축원**

- 외국 수입견
- 교화사육상담
- 각종 견수 취급
- 애완견분양

대표 서영진 (61경제)

중구 충무로 5가 73-2  
266-0731 · 267-0195  
265-0086

화화배달  
FLOWERS BY PHONE

777-5040

전화 한 통화로  
축하의 기쁨과  
만족의 꽃이  
됩니다.

뽀보의꽃방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호텔 입구

대표 : 이금향 (77가교)

• 금은 · 보석 · 시계

三正堂



779-3360

서울·중구 명동지하상가 마6호

대표 金基俊 61경제

東國人은  
東國人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1. 학생 및 동반자 세계일주 특별할인요금
2. 기장 펴리한 시간 연결
3. 출입국 신고서 작성

나라航空

대표이사 安重五  
(65영문)776-7895 ~ 7  
752-4396 ~ 7삼구빌딩 1103호  
(조선호텔후문 및 응온)

창간 10주년 기념  
광고 기획 안내

「東友會報」에서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기념 광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서로돕는 同門社會』를  
이루기 위한  
이 사업에  
많은 同門들의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東友會報」

東國人의 광고를

기다립니다

東國大學校 同窓會 事務局

전화 : 267-8568  
274-7449(直)  
267-8131 ~ 9  
(交) 3531

품질좋은 진을 부담없이 입자는 것 — 질이고 튼튼한 만큼 아무리 얹어도  
원래의 스타일이 변형되지 않는 최고의 품질!  
우리 상표이기에 무난없는 가격!  
입을수록 색상이 살나니고 스타일이 돋보인다.  
멋있게, 패하게 입는 진 — 펫토스  
친구끼리 가족끼리 남다른 세계를 추구할 때  
진 하나라도 강한 자부심으로 선택한다.

펫토스 진은 디자인과 패턴이 다양하며,  
함께 입으면 잘 어울리는 니트, 남방도 있습니다.

일별금은 펫토스 진의 심풀미크로 형문화 의미합니다.



# 모교開校80주년 맞아

오는 8일 소비·사치지양 학술적 행사로

모교에서는 개교80주년을 맞아 소비·사치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기록성 및 구체성을 가진 학술적 행사 위주로 영속이고 기념비적인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11월의 학·처장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개교80주년 기념사업을 살펴보면, 5월 중 학군단 및 학부에서 대강당과 학생회의 공간으로 활용될 「80주년 기념관」을 작품하며, 동국의 정신적 지주라 할수 있는 「고海詩碑」의 전립, 「동국80년사」편찬, 희귀본경 영인본 간행등의 사업을 비롯, 「인문과학 실풋지음」「사회과학 심포지움」「법학 심포지움」「사회과학 심포지움」「기념식」「시화전」, 박물관 특별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게 된다.

이밖에도 개교기념일을 전후해 「불교 성지답사 사전진」(東大 80년 산전진시회) 등에 관한 관계문헌도록 밤간 「한국문화학회」(「법학 심포지움」「기념식」「시화전」, 박물관 특별전시회 등)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게 된다.

경주캠, 조경 활발  
묘목·기금등 담지

모교 경주캠퍼스에 2천만원 상당의 묘목 및 현수기금이 담지 교내조경이 활기勃勃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묘목 및 현수기금은 안제란(54국문·복지 종교이사장), 동문이 1백만원을 회사한 것을 비롯佛國寺에서 편액나무, 산나무 2백53수, 울릉군에서 단풍나무 등 42주,朴廣度(65불교·경주부동 등장) 등 1백주, 박민환 국회 의원 1주 등 총 3백여주에 달한다.

경주캠퍼스도서관  
5백여권기증받아

모교 경주캠퍼스 도서관은 지난 3일 「아시아재단」으로부터도

서 5백여권을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도서는 의학관계 도서가 주종으로 컴퓨터, 경제, 회계등의 도서를 끌고 갖추고 있는데, 특히 올해 경주캠퍼스에 신설된 의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월의 학·처장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개교80주년 기념사업을 살펴보면, 5월 중 학군단 및 학부에서 대강당과 학생회의 공간으로 활용될 「80주년 기념관」을 작품하며, 동국의 정신적 지주라 할수 있는 「고海詩碑」의 전립, 「동국80년사」편찬, 희귀본경 영인본 간행등의 사업을 비롯, 「인문과학 실풋지음」「사회과학 심포지움」「법학 심포지움」「기념식」「시화전」, 박물관 특별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게 된다.

이밖에도 개교기념일을 전후해 「불교 성지답사 사전진」(東大 80년 산전진시회) 등에 관한 관계문헌도록 밤간 「한국문화학회」(「법학 심포지움」「기념식」「시화전」, 박물관 특별전시회 등)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게 된다.

경주캠, 조경 활발  
묘목·기금등 담지

모교 경주캠퍼스에 2천만원 상당의 묘목 및 현수기금이 담지 교내조경이 활기勃勃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묘목 및 현수기금은 안제란(54국문·복지 종교이사장), 동문이 1백만원을 회사한 것을 비롯佛國寺에서 편액나무, 산나무 2백53수, 울릉군에서 단풍나무 등 42주,朴廣度(65불교·경주부동 등장) 등 1백주, 박민환 국회 의원 1주 등 총 3백여주에 달한다.

경주캠퍼스도서관  
5백여권기증받아

모교 경주캠퍼스 도서관은 지난 3일 「아시아재단」으로부터도

佛誕日 연능 제작 「불교학생회」에서

모교 불교학생회에서는 4·19 남단 22일 연등회를 개최, 불당과 개교80주년 동국축전에 코스 일 연등 1천여개를 목표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아래 제작하고 있다.



## 용산고·숭의여고·파원

### 모교총장기「고교농구대회」

리고 결승에 오른 숭의여고가 총장기 챔피언 「제12회 전국남녀고교 농구대회」에서 각각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5일부터 남자부 12개 여자부 15개 등 총 27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모교 체육관에서 개막된 대회는 조별선리그를 거쳐 상위 2개팀씩이 결승보너트로 패권을 사리며 경

기적으로 진행되었다는, 2일 접

금에 70대57로 낙승을 거두어 차

음으로 대회 패권을 차지했다.

1950년 4월 15일 창간되어, 전

### 농구부 「춘계연맹전」준우승

### 국민대에 역전패 우승 놓쳐

모교 농구부는 지난 20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제23회 춘계대학 농구연맹전」에서 결승리그전 3승 2패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예선리그 조수위로 6강이 겨루는 승승리그에 모든 모교는, 결승리그 마지막 국민대와의 경

기서 76대74로 아깝게 역전패

함으로 공동 우승의 기회를 놓

치고 말았다. 결승리그 전적은 다음과 같다.

▲對전국대 65-62승 ▲對중앙

대 68-66승 ▲對한양대 79-64

승 ▲對고려대 67-60승 ▲對국민

대 76-74패

기서 76대74로 아깝게 역전패

함으로 공동 우승의 기회를 놓

치고 말았다. 결승리그 전적은

다음과 같다.

▲對전국대 65-62승 ▲對중앙

대 68-66승 ▲對한양대 79-64

승 ▲對고려대 67-60승 ▲對국민

대 76-74패

생일이면 떠오르는....

##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 (70경영)

세무사 鄭大鎮 (63법학)

稅務 상담·기장대리

심사·심판·청구

전화 856-6182 854-5618  
856-4924 853-4635

세무사 정대진사무소

## Lee's CUSTOM TAILOR



### 리즈양복점

명동 세종호텔 뒤편

(대형빌딩 305호)

☎ 777-0829

대표 李光錫 (經院 21期)

## 서울綜合保險

代表 최윤식 (61경제)

### 각종 보험업무 취급

서울 종로 인현동 2가 73-1

(풍전호텔빌딩 3층 리362호)

☎ (274) 1554~5

“안정속에 발전을 지켜드립니다.”

## 三山產業株式會社

보다 효율적인 광고효과는  
同門 노병현·김운경에게  
맡기십시오.”

온외·종합광고  
기업 PR용 판촉물

컴퓨터 초정밀 가공 제조업체

742-7169

電話發注 745-1491



代表理事 補秉賢 (基事학)  
專務理事 金允經 (경대원)

이색동문 韓國

徐榮鎮 동문



언제나 개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大公의代父』 서영진(61 격체·대한가축원대표)동문.

『평소 동물을 좋아해, 늘 가까이 하다보니, 「개아버지」란 별명과 함께 직업이 되고 말았다』는, 徐동문이『개아버지』로 통하기 시작한 건, 1957년 모교 경제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

## “팔순맞은 모교 조용한 이유”

팔순모교 환히 빛나

○…오는 5월 8일이 모교의 여든번째 생일입니다 누구나 다아는 사실.

그런데 모교가 예년과는 달리 조용하기만해 알아본즉 머들고, 막사는 낭비성 1회 응행사를 모두 없애고 학술·문화행사에만 주력한다는 계획아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교기념식들은 예년과 같지만, 80주년 기념관, 만해시비 전립·불경인화, 인문·사회과학·심포지움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들로 뜻있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착착 진행중인데, 거의가 학술행사인 점이 모교의 學界를 달아오르게 하는 원동력.

이 소식을 들은 K동문이『자화자찬에서 벗어나 새시도를 하는 80주년을 보니 國內의 내일이 환하게 비춰는 것 같다』며 반기워 하기도.

本동동동서도 東國의 학통

## 犬公의 代父…품속에는 항상 강아지가 국내 애완견 시장의 80% 물량 공급

당시 仁川에서부터 학교까지 통학하던 「기차통학생」 품은餘 동문을 포함해 모두 19명으로 이들은 항상 같은 칸에 타고 다니면서 짐을 나누곤 하였다는데, 徐동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아지를 안고 다니는것을 보고『개아버지』라고 놀려 대던 것이, 이제는 3곳의 독장과 서울과 인천을 3곳의 가축원을 거느리는 명실공히『大公의 代父』가 되었다고.

가족들로부터 「공부는 하지 않고 개하고만 사느니」며 목도 많이 떠버렸지만, 개를 데리고 다니다보니, 강의실에서는 항상 뒷자리에 앉을 수 밖에 없었다단다.

『품속의 강아지가 실례(?)』를 하거나 「낑낑」거리기라도 하면 다른사람에게 방해가 되겠기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강

의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지요』하면서 너털웃음을 터뜨린다.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개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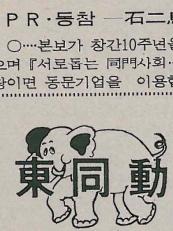
르고 있다고 주위의 손가락질

도 받았으나 이제는 함께 출입한 동기를 중에서 얼순가락 안에드는 기업가로 변신, 부러움을 사고있다고.

현재 仁川과 강원도 양양에



▲ 퇴계로 「대한가축원」 내부 모습.



東同運動

동동국대同동정회동운동직임

다라는 캐치프레이즈아래,

기념기획광고를 계재하고 있

는데…

함강·본회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온 S동문,『자

신의』 기업도 P R하고, 동창

회사업에도 일조하는 一石二

鳥가 아니었나』며 한마디.

동창회 사업이란게 원래 농

“동문에 의한, 동문을 위한….”

둔들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보면, 이번 사업에도 역시 전과같이 많은 동문들이 의 참여 있으시길 기대합니다요.

최보10년, 선원에 감사

○…본보가 창간10주년을 맞아 본회에는 각계동문들의 격려와 성원이 담지하고 있는 데…

그간 편집진이 「동문들에게 정확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동분시주하면서 그린 광통집은 동문들의 제보나 원고가 큰 힘이 돼 준다는 것.

홍국생명·동우회, 삼북동문화회, 충남지부등 몇몇 동우회는 모임이나 총회 그리고 회원들의 인사나이동이 있을 적마다 서신이나 전화로 소식을 전해주는 모범을 보이기도.

본동동동은 동분세계에 고하노니 회보는 동문에 의한 동문을 위한 동문의 신분이니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본동동동은 동분세계에 고하노니 회보는 동문에 의한

동문을 위한 동문의 신분이니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동포들은 운명하며, 애완동물은 물론 소, 돼지, 사슴등 기를 수 있는 동물을 전부 기르고 있었으나, 지난해 소값과 동 이후 소는 모두 처분하고 지금은 사슴과 가장 아끼는 개에 주력하고 있다.

세곳의 농장을 운영하며, 애완동물은 물론 소, 돼지, 사슴등

기를 수 있는 동물을 전부 기르고 있었으나, 지난해 소값과 동 이후 소는 모두 처분하고 지금은 사슴과 가장 아끼는 개에 주력하고 있다.

복간외에 퇴계로에 있는 「대한가축원」과 애완용犬俱를 취급하는 「영진가축원」을 비롯해 인천에 「대한가축원」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徐동문의 「대한가축원」은 우리나라 전체 애완견과 견구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퇴계로의 가축원 상가도 徐동문이 개척한 것이라고 한다.

개를 사랑하는 것 못지 않게 효성도 지극해 노부모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자료로도 소문이 나오는 徐동문은 『영어로 神(God)을 거꾸로 읽으면 개(Dog)가 되잖아요. 아마 내가 개와 생활하게 된건 하늘이 주신 취지으로 생각한다』면서, 『집사람과 주아들의 에도, 개며, 사슴이며 딸린 식구가 많아, 성신온자치가 따뜻하다』며 염살아닌 염살. <英>

서문에는 頌德詩 頌德畫도 걸여있다.

<法文社刊>

「큰스님 피리와…」

徐京保 동문

徐京保(51불교)동문의 깨달음 말 제2집『큰스님 피리와 기침소리』가 나왔다.

徐동문은 이 책에서 옛자선인들의 사랑과 의리와 믿음과 슬기로 통해 인간본연의 도리를 쉽게 터득하게 하고 인생철학의 소박한 자세를 제시했다.

<호암출판사·3천 2백원>

「韓國佛教史 概說」

金煥泰 동문

金煥泰(59불교·교묘불교대학장)동문이 민족신앙인 佛教의 제반사상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살펴본『韓國佛教史 概說』을 저자, 출간했다.

金煥泰은序문에서『한국불교는 한국역사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三國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 최근 대로 나뉘 수용과 역사적 변천, 시내별 특성, 고승들의 생애와 사상, 문화적 현상을 축괄하여 면밀히 고찰했다.

정통한 한국불교사가 없던 학계와 교계에 이 저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成和ビル딩

“傳統과未來를 세계로 잊는 종로애브뉴”

분양회원 모집 734-0051-5

- 상권의 중심지로서 최대의 입지조건
- 합리적인 주차시설로 최대의 편의
- 고유기능의 여섯 공간과 최고의 기능
- 작은 피해까지도 보상해 드리는 보험에 가입
- 관광코스 지정 아케이드

F 12~13 오피스텔

F 5~11 오피스

F 3~4 미술공간·공연공간

F 1~2 은행공간

B 1 전통문화공간·면세점공간

B 2~4 주차공간

成和ビル딩

大京産業株式會社  
成和實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18

대표이사 崔禎植 (經院 1期)

감사 李知映 (68商科·經院 1期)

7월 31일 준공 예정



東友會報 창간 10주년, 개교 80주년



## 기미·주근깨 없는 깨끗한 얼굴을 원하십니까?

### 먹는 기미·주근깨 치료제 스타론으로 해결하십시오.

여성의 얼굴은 생명만큼 소중한 것.

기미·주근깨로 거울보기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기미·주근깨는 ● 간이 나쁠 때(술·담배 등) ● 정신적 스트레스

● 임신 또는 분만 ● 지나치게 자외선을 쬐었을 때 ● 피임약 복용

● 부적당한 화장품의 사용 등으로 생기기 쉽습니다.

이제부터 기미·주근깨를 예방, 치료하실 때에는

먹는 약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먹는 약 스타론은 피부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기미·주근깨를 피부밖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기미·주근깨가 생기지

않게 하는 확실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기미·주근깨의 치료는 정확한 약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수면,

신선한 야채나 과일의 섭취는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기미·주근깨는 쉽게 낫지 않는 증상! 눈에 잘 띠는 곳에 두고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기미·주근깨 예방치료제

 **스타론정**

준소매가격 : 180T → 16,000원



동외제약

• 아시아는 '86으로 세계는 '88로 • 잘기른 말하나 얼어들 안부럽다.

생명공학에서도 앞서가는 태평양화학

男

그 완성의 향취—쾌남루트 레몬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A shirtless man with a towel around his neck, holding a yellow cloth, stands next to a Root perfume bottle. In the foreground, there are two smaller bottles of Root perfume, one yellow and one green, along with a small inset photo of the same man.

아침마다,  
남자는 또 다른 자신과 만난다.

쾌남루트 레몬.

언제나 새로운 레몬 향취—  
피부에 상쾌하다, 가슴까지 싱그럽다.  
남자, 그 완성의 향취—쾌남루트 레몬.



• 쾨님루트 레몬로션	150㎖ 5,300 원
• 쾨님루트 레몬스킨	150㎖ 5,300 원
• 쾨님루트 스키마일크	150㎖ 5,300 원
• 쾨님루트 헤어크림	130㎖ 5,000 원
• 쾨님루트 헤어도너	130㎖ 5,500 원
• 쾨님루트 헤어리퀴드	120㎖ 4,500 원
• 쾨님루트 헤이알	60㎖ 5,500 원
• 쾨님루트 크림포미드	60ℊ 5,500 원

그 깊은 사나이의 세계

ROOT